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 때에 창조와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패역한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구촌이 신뢰하는 부르짖음을 감행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가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9장 20-21)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8호 2012년 6월 1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동성결혼, 국지전서 전면전으로 확대

미 언론, 오바마 동성결혼 옹호발언 후 미전역 급진전 보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단골메뉴인 "동성결혼"의 수위가 과거 대선과는 달리,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지난달 8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권자들이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 개정에 찬성했다. 주 헌법 변경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합법적인 동거관계를 결혼한 이상관계로 한정하는 헌법 개정안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61%).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기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미국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미국 행정부의 수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미국사회는 이들 사이에 원, 투 펀치를 맞은 복서처럼 동성결혼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데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가져다주는 충격에 흔들리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논란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즉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자마자 보수적인 남부, 흔히 '바이블 벨트'

라고 알려진 지역에서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북부인 미네소타, 동부의 메릴랜드 그리고 서부의 워싱턴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정치권이 아닌 교회공동체와 주민들의 풀뿌리운동 차원에서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청원이 잇달아 주정부에 접수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지난 5월 23-24일 양일간 미전역에서 모인 175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전통적인 결혼을 수호하는 새로운 연합체를 조직했다. 여기에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존동해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뉴스전문방송인 CNN은 방송을 통해 "미국사회가 본격적인 문화 전쟁 즉 동성결혼 전쟁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의 무리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 헌법 개정안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민심이 민주당 오바마 후보에게 쏠려, 소위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라고 불릴 만큼,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이다. 그러나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는 말이 무색하게 빌리 그래함 목사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 운동을 지지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시켰다.

그 결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결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된다는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를 지켜낸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동성결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권리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옹호 발언 이후 '동성결혼 전쟁' 국면으로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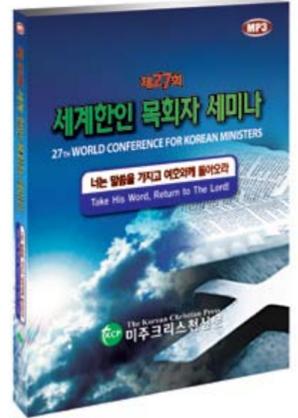
를 적극 지지하면서도 민감한 선거 이슈인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관점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동성결혼 지지자로 급선했다.

결국 민주당이 오는 9월 초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제 중심지인 샬럿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로 결정할 만큼 애착을 보이고 있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민심은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윙 스테이트' 노스캐롤라이나 민심은 공화당으로 돌아섰다는 미 언론의 분석과 더불어 고무적인 사실은 미전역 즉 미네소타,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도, 주민 청원으로 인한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나서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보수적인 남부, 흔히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진 지역에서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동성결혼을 근절시키려는 운동이기에 더욱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3면으로 계속)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금란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9편 전체가 2장의 CD(MP3)로 나왔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5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교회부흥과 땅끝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6강의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의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총 소요시간 24시간. 2개의 CD로 묶어 가격은 20달러.

강사는 김홍도, 소강석, 권태진, 황의영, 천성덕, 김기원, 조일래, 송용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일구, 김규동, 송규식 목사와 분지 발령한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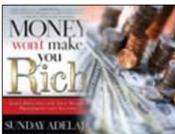
또 제 26회 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 CD 2벌도 함께 발매한다. 27회와 함께 총 4장의 CD를 합쳐 30달러에 판매 한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20달러(제 27회 목회자세미나)
 30달러(27회 & 26회(평신도 포함)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크리스천은 돈의 노예 아닌 돈의 지배자!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13면

선교지 편지 우간다/쿠미프로젝트



16면

인터뷰 송정명 목사(월드미션 총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9월 7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2년 9월 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2년 9월10일(월) - 12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며칠 전 오후 시간에 손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어떤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 방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교회당을 지나가야만 했다. 어두컴컴한 교회당을 지나치다가 문득 누군가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는 예배실에 있는 이가 누군가를 물었더니 그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저렇게 기도하는데 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때 내 마음 속에는 먹먹한 감동과 자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언제 저렇게 기도하느라고 하루를 보내었던

가. 교회사역이 점차 많아지면서, 때로는 교회 밖의 일에도 쫓아다니는 일이 더 바빠지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사는 나로서는 새벽기도회에 나가서 한 시간을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 것도 때로 피곤하게 여기는 입장이어서 하루를, 그것도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른 목회자의 모습이 신선한 충격을 넘어서서 부끄러움과 함께 나 자신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행하는 사역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였다.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벼이 여기는 증상은 그뿐이 아니었다. 요즘 들어 성경을 더욱 실감나게 읽으며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에 헌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뿐만 아니다. 교회당에 들어설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곤 하지만 형식적인 때가 많을뿐더러 앞자마자 요식적인 기도를 드리고는 별책 일어서서 사무실로 향하며 어느 순간엔가 전화통을 붙잡거나 잡일에 몰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가까이 하면서부터는 마치 무슨 노이로제 환자처럼 소리만 들리면 전화기를 손에 들고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하는 나 자신에 놀라기도 한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면 신앙의 성도는 넘치는 복을 누리려는 자들이다. 성경에서 강령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간헐적이었고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었지 않은가. 그러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였다(출33:11). 그는 '함상' 장막(회막)을 백성들이 머무는 진 근처에 있게 하지 않고 멀리 떠나 있게 했다. 회막(會幕)은 Meeting Tent이다. 회막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다. 오늘날 교회(教會) 역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지도자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앙모하였다(출33:7).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졌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는 모세를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은혜를 갈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는 은과 금을 갖춘 교회다. 굳이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들을 빼놓고는 대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예배가 아니어서 끈고하고 가련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문밖에 계시기 때문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다시 가난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름의 권능을 회복하고 싶다. 화려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날마다 먹고 마심기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과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그 자리를 집요하게 떠나지 말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돈의 노예 아닌 돈의 지배자!

크리스천 북리뷰, 부의 창출과 역할 성경적 관점에서 다룬 책 소개

나이지리아 태생의 선데이 아델라자(Sunday Adelaja) 목사는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어보지 못할 만큼 극빈한 환경에서 자랐다. 열아홉 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한 그는 구소련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소련연방'이 붕괴된 후, 기독교 탄압 지역인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하나님의대사(God's Embassy)교회를 개척, 서른세 살 젊은 나이에 유럽 최대의 오순절파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45개국에 700여 개 지교회를 세웠다.

오렌지 혁명(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때 야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으로 여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해 재선거를 치르게 했던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300여 개를 세울 만큼 선데이 아델라자 목사는 종교, 정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크라이나의 희망'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 사역 활동 덕분에 2007년 미국 상원의원 개회 때 기도를 맡았고 같은 해 UN에서 두 차례 대표연설을 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을 노예로 삼을 것인가? 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청부론의 모범을 보여준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삶을 압박하는 물질 때문에 고민한다. 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정작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를 거

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에 관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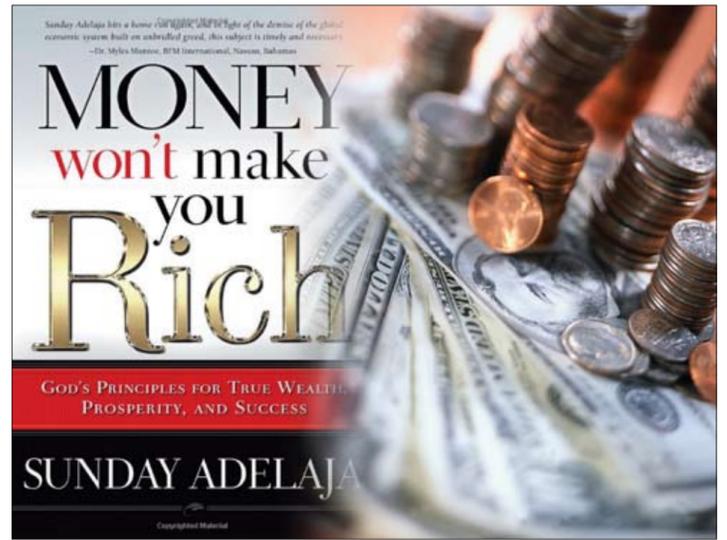
결국 크리스천들이 겪는 일상에 서 주일마다 달마다 현금과 십일조

부에 관한 명확한 시각과 소명을 제공한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가 주장하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는 개인의 필요 충족을 넘어 하나의 목적에 가깝다. 그 목적이란 바로 물질들

돈을 노예로 삼을 것인가?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이 책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에 관한 현실적인 답을 제



돈이 부자 못 만드는 돈의 법칙과 진정한 성공과 번영의 의미, 성공 방해요소, 재정실패 원인 등 하나님 재정법칙 따라 설명

론하는 것 자체를 극복해한다. 돈은 과연 악의 뿌리인가? 거룩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돈은 반드시 멀리해야만 하는 요물인가? 그리스도인이 고수해야 할 삶의 절대 원칙은 '청빈' 뿐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물질에 초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실상, 물질에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 또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성경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백합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한다.

아델라자 목사는 오늘날 자본주

에 갈등하며 시험에 빠지는가? 아니면, 당장 집 렌트비의 현실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가? 곧 물려줄 청구서들, 지긋지긋한 빚에 쪼들려 살이 팍팍해졌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답을 던져준다.

아델라자 목사는 줄곧 하나님의 '부의 법칙'으로 진정한 '부유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물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돈을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면한다. 그의 이런 메시지는 돈의 이중적 잣대에 서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배하고 제대로 관리해 이 땅의 빈곤을 퇴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고 돈을 써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청부론'을 지향하는 이 책은 총 13챕터로 구성되었다.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돈의 법칙과 재물 철학, 진정한 성공과 번영의 의미 등을 설명하며,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 재정 실패의 원인 등을 하나님의 재정 법칙에... 그리스도인,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시해준다.

결국 이 책은 제목처럼 분명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천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의미 있게 적용할 때 부자, 그것도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서 왜 부유해져야 하는지 그 소명에 입각해 건강하게 돈 버는 법, 돈 쓰는 법을 성경적 제정 원칙에 따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KAPC새임원 정정/추가

지난달 21일 열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총회(기사 1386호 1면)의 새 임원 중 △회록서기: 김영수 목사(중남미노회) △부회록서기: 김성일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로 변경, 누락됐기에 정정, 추가합니다. 또한 본지 1387호(6월 9일자) 16면 인터뷰 총회장 김남수 목사의 시무교회를 아가페장로교회로 정정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Midwest 정기 여름 특강

June 18(월) - 22(금)

2012 학년도 학위 수여식

June 22(금) 오후 3:00

Midwest Summer Concert

June 22(금) 오후 7:00

International Seminar

June 22(금) 오전 9:00 - 오후 1:20

"Christianity Culture and the Future China"

성경원어 연구원 여름 특강

특강과목: 히브리어 입문
일정: June 18(월) - 22(금)
강사: 오명환 교수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바이블 벨트’ 동성애 혐오 목소리 잇따라

(1면에서 계속)

중북부 미네소타 주에서는 가톨릭과 루터교회를 중심으로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기 위해 주민 청원 운동을 벌였다. 즉 미네소타 주에서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연대를 모아 "Minnesotans United for All Families"를 결성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지사에 의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8번째 주가 된 매릴랜드에서도 이를 번복하려는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감지되고 있다.

즉 '매릴랜드 결혼연합(the Maryland Marriage Alliance)'은 11월 선거에서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동성결혼 합법화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정족수 55,736표의 2배가 넘는 113,000개의 청원서를 주 정부에 접수시켰다. 결혼을 이성인 아닌 동성 간의 일차리는 급진적인 정의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서부 워싱턴 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을 선거 이슈로 설정하기 위한 정족수, 120,000을 보다 정확하게 2배가 되는 242,000의 청

동을 출범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로 선화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들과 이념들을 갈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대선에서 같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아프리카아메리칸 교회들 역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흑인 대통령을 재선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워싱턴D.C에서 흑인들

기부자는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오바마 지원을 보류했다. 또 오바마가 최근 연방정부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동성애 기부자들은 그를 완전히 따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선거자금 외에도 청년층의 지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한 요인이었다. 오바마는 청년층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은 결



미전역 175명 크리스천리더 모여 전통적 결혼수호 연합체 조직

원들을 받아 주 정부에 접수시켰다. 물론 서명의 진위와 주소지 검토를 위한 행정 작업이 남아있지만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동성애 교육법(SB48)'을 철회시키기 위해 충분한 주민 청원을 받았지만 서명량이 아닌 다른 난에 서명을 했다 또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이다.

워싱턴 주에서의 동성결혼 반대운동에는 1,500개 교회들의 일치와 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을 돌며, 발품을 팔아 얻어낸 개가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처럼 미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봉쇄 움직임이 국지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전 공화당 대통령 예비 경선 주자였던 샌토럼 후보는 오바마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전을 지난 9일 선포했다.

소위 "애국자의 소리들(Patriot Voices)"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의 신앙, 가정, 자유 그리고 기회를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결성을 샌토럼 후보는 천명했다.

따라서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티파티 운동이나 다른 단체들(Red White, Blue PAC)을 총동원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

만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호프크리스천교회, 담임인 해리 잭슨 주니어(H. R. Jackson Jr.) 목사를 중심으로 연합체가 결성되고 있다.

결국 샌토럼 후보의 전면전 선포, 흑인 교회공동체들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 철회 등 이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면전 양상으로 업그레이드되자,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 역시 연합군으로 이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즉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의 모임(CWFA)' 역시 오바마 정권 퇴진에 맞불을 놓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 언더파밀리, 신앙과자유연합(Faith and Freedom Coalition)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단체들까지 가세해 오바마 대통령이 던진 무리수를 사방에서 협공하고 있다.

사태가 이처럼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게 되자 뉴스위치는 최근 '주류사회를 뒤집어 놓은 대통령' 제목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옹호 발언은 순전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흑인들의 민권과 동등시되는 발언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오바마의 선거자금 모금자 중 동성애자가 6분의1이나 된다. 오바마는 그들의 돈이 필요하다. 월스트리트는 2008년과 달리 올해는 지금까지 오바마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몇몇 유대인

은 평등을 전폭 지지한다. 최근 30대 미만인 2008년에 비해 열려스러운 정도로 선거에 무관심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트 롬니의 강경한 입장-동성 커플의 모든 권리를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 필요 - 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오바마는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이번 대선을 선택의 선거(a choice election)로 만든 것이다.

결론으로, 대선 가도를 달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리수를 던졌다. 그리고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후원과 청년층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트 롬니 후보 역시 중도 노선에서 벗어나 강경한 보수정책으로 맞서고 있고, 샌토럼 후보나 전국적인 네트워크 가진 복음주의 단체들이 연대해 선택의 선거를 미국사회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종적인 장벽이나 교단간의 차이를 벗어나, 미국사회의 보수 복음주의 진영이 이제 11월 선거에서 "궁극적인 선택"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치와 연대가 성공한다면 미국 정치에서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영향력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나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시 73편

우리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요1:12). 그 후에는 일평생을 통하여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철저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복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삽이라는 성도가 크게 실족할 뻔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12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4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는 우리가 믿음을 꼭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신앙의 갈등을 가지게 합니다. 아삽도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구하여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개념은 잘 살고, 재물이 많고,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고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죽은 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은 이후의 일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전까지만 보고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 베일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까지 보고 살아야 합니다. 또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멀리 천국까지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현실입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과 천국을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후의 그 사람의 형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악인이 지금은 이렇게 왕성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눈을 열어 그 사람이 당할 죽은 후의 형편을 바라보니 지금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눈앞만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부럽고 자기 자신은 형편없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갈등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국을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천국이라는 믿음의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닦아야 하고 기도로서 믿음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현실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복입니다. 한번 방황하게 이것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 내게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유일한 복은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이, 소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그것을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확신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슴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그 반응으로 나도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행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채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복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에 항상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알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누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행복한 존재로 삼시다.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

The Eastern Korean Presbytery,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는 아래와 같이 사무총장(Executive Presbyter)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나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섬기신 분
2. 미국에서 3년 이상 교육을 받고 학위 취득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에 능숙하신 분
4.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서류** 1. 본 교단 소정의 P.I.F.
2. 한글, 영문 이력서
3. 사무총장 직책에 대한 소견 및 신앙고백서
4. 사진(여권) 1매
5. 추천서 2통

- **서류제출 마감** : 2012년 7월 31일까지
- **서류제출처** : Rev. Paul C. Yang (청빙위원장)
124 Scarlet Oak Lane Paramus, NJ 07652

- **문의사항** : Tel) 201-843-2222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위원회

미주보수교회연합회

2012년 제1차 총회 (임시) 정·부회장 임후보 등록 공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2012년 5월 21일 창립한 미주보수교회연합회의 정, 부회장 임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3일(토)까지 본회 입회 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서 임후보를 원하는 후보는 본회 준비서류를 2012년 6월 23일(토)까지 본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 제출처**: 144-31 41Ave. #1F, Flushing, NY11355
- ▶ **문의 사항**: 917.699.6036

주주 2012년 6월 8일

미주보수교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목양칼럼

천등산 박달재



한평우 목사 | 로마한인교회

텔레비전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온다. 외국에서 듣는 우리 노래는 오페라를 듣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감흥이 있다. 무언가 구수하고 애수가 서려있는 곡이다. 이런 노래를 듣노라면 저 깊은 마음의 밑자락으로부터 알 수 없는 향수가 스밀스밀 솟아난다. 나는 이런 옛 노래의 CD를 차 안에 두고서 아주 가끔 아내와 둘이서 먼 곳에

갈일이 있으면 틀어놓고 깊은 향수의 바다에 빠지곤 한다.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나는 이 노래를 잊을 수가 없다. 내 나이 대 여섯 살 때, 아마도 6.25의 치열했던 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들었을 때이었으리라. 아래 집에 살던 큰 형님 뻘 되던 아저씨가 밤에 놀러오셨다. 무슨 일인지 형님은 그 때 집에 계시지 않

았다. 겨울, 화롯불을 끼고 아저씨는 비스듬히 누워 이 노래를 부르셨다. 동네에서 아저씨가 맨 처음 배워 부른 노래였다.

가락이 구슬프기만 했다. 전쟁으로 인한 여파는 깊은 산골까지 영향을 끼쳤고 먹을 것이 열악했던 때였다. 밤에 군것질로 고구마를 날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찌꺼기가 유일한 간식이었다. 동족상잔의 치열한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에 찌들어져 소망에 대한 노래를 흥얼거리 수 없던 시대였다. 웬일인지 아저씨는 그 밤에 유난스럽게 구슬픈 억양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 때 한번 듣고 외운 유일한 유행가가 바로 천등산 박달재였다.

나는 반세기 이상을 가끔씩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천등산 박

달재가 어디에 있는 지, 혹은 가상의 지명인지도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상스레 천등산에 대해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요즘에는 아주 편한 세상이다. 컴퓨터에 알고 싶은 것을 입력하기만 하면 즉시 원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올라온다. 인터넷에 클릭을 했더니 천등산 박달재에 대해 친절하게도 사진까지 보여준다. 충북에 있는 해발 2000미터의 깊은 산으로 애절한 내력이 전해온다고 한다. 노랫말도 이런 내력을 바탕으로 쓰였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는 청년이 천등산의 박달재를 넘게 되었다. 청년은 박달재의 주점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다. 청년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만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 총각은 만사 제쳐놓고 아름다운 처녀 곁에 있고 싶었다. 그러나 처녀의 간절한 요청으로 할 수 없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기다리라는 간곡한 부탁을 남기고 떠난 것을 입력하기만 하면 즉시 원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올라온다. 인터넷에 클릭을 했더니 천등산 박달재에 대해 친절하게도 사진까지 보여준다. 충북에 있는 해발 2000미터의 깊은 산으로 애절한 내력이 전해온다고 한다. 노랫말도 이런 내력을 바탕으로 쓰였고...

한편 손꼽아 기다리던 처녀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총각이 변심한 줄 알아 그 높은 고개에서 몸을

날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총각도 처녀가 몸을 날린 곳에서 역시 몸을 날렸고, 그래서 가사는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라고 노래한 것이다.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지순한 이름 때문에 젊은 두 사람은 살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는 쉬운 결단을 하고 말았다.

천등산 박달재. 내가 처음 배운 노래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두 사람의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마다 그 추억의 돌비 앞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서 끈질기게 사랑을 탐을 쫓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해 본다.

푸/ 른/ 초/ 장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를 보편화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극소화시키는 경향은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오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을 꿈꾸며 더욱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력과 에너지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많지만,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하고 그 해법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온 근원을 보면 결국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뿌리가 깊고 우리 삶에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숨어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관계를 깨는 것, 자존심의 문제,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 몸과 사람이 영광스러워서, 서로가 볼 때 찬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 관계에 황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몸,

사람을 굉장히 흑독하게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수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수치심,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건강하면 자존감

은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고운 말을 하고 싶지만 뼈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듣기에는 꼬인 말로 들립니다. 이것이 모두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별하고 구별해서

는데,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시몬은 감정기복이 많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게바라고 불러주신 것은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삶을 살라는 격려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여 절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일으켜 세우셔서 사도로 헌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복음의 일은 아무리 과거가 어떠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

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딸이 얼굴이 좀 못생겨도 자꾸 예쁘다고 말하면 그 아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아빠가 확신에 차서 “너는 정말 예뻐”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포지티브 자아상으로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외모보다 내적 안정과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굴에 풍겨나면서 아름다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유가 계속되는 가정 창세기 1장 26-28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창조물 중에 최고의 절정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수치심과 두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리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변명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면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자신이 웬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아도 상대를 보아도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다른

이 높고, 자존감이 높으면 내면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날카롭지 않고 건강한 이미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아상이 깨어진 사람들은 깨진 안정감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관계에도 역기능의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자아상이 깨어짐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정상이 아닙니다. 즉,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작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결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

리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고 우리 안에 낙심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격려를 해야 합니다. 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한마디의 격려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따뜻한 한 마디가 가정 안에서 관계를 얼마나 회복시키는지를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무너뜨리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여겨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좀 못해도 다른 것을 못한다는 것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마음껏 격려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말과 같이 이루어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허물을 덮고 존귀하게 인정할 때,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었다더라도 가정 안에서 회복으로 용기와 살 소망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이웃관계를 펼쳐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주 어린 아이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는 소유물이거나 부속품이 아닙니다. 내가 못다 한 한을 풀어줄 도구도 아닙니다. 그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때,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그것이 가정의 향기가 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격려의 언어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입문(Bo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와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권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레복음의 길과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학아카데미가 주관!

▶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천천히 세사의 식습관까지도 알기 쉬운 문체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해 놓지 않은 금강종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장재일 목사**

- ▶ 유신신대원 총원
- ▶ 예루살렘대학 신학 석사(히브리어 석사)
- ▶ 한성대학교 Ph.D. 과정
- ▶ 한세대학교 석좌 겸임목사
- ▶ 한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연구위원
- ▶ 한미신학대학원 석좌교수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서울국제도서전

6. 20. - 24. COEX A/B 홀

www.sibf.or.kr

▶ **www.israelecademy.com** ▶ **www.gurman.co.kr** ▶ **www.sibf.or.kr**

교육칼럼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4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에는 적어도 지나간 반세기 동안 미국의 영적흐름을 주도해 온 여러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갈보리채플(척 스미스 목사)과 새들백교회(릭 워렌 목사)와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Church), Evangelical Free Church(전 척 스윈들 목사) 등이 바로 미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수정교회가 지난 토요일(6월 9일)부터 오렌지카운티 가톨릭대성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안타까운 심정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교회에서 말지 않은 곳에 살면서 가끔은 예배도 참석하고 교우들과 함께 뮤지컬도 여러 차례 참석했었는데...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은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가 30여년을 계속해 온 연합성가제가 이곳에서 열리곤 했는데... 우리 한인 성도들의 마음이 이럴 때, 미국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미국인 개신교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크리스털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당과 타워가 마치 911사건으로 뉴욕의

다면 수정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의 위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돌

고 그들을 돕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높은 벽에 부딪혀 아직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이와 같은 논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들은 실망하고 상처만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어렵게 꺼내었습니다. 다루기 힘든 부분이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마치 1세대 목회자인 "담임목사님들이 나쁘다"라는 주장으로 비쳐질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숨기지 말고 차라리 오픈하여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1세대 목회자들이 걸어온 이민목회의 현장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2세대들은 그 희생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1세 목회자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1세 목회자들이 2세 목회자들의 사고와 의식 그리고 그들이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한심해보여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극히 정성으로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

1세대 헌신 바탕위에 2세대 부흥 세워야 시대이해의 눈으로 이해하며 리더십 계승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야 하는 허탈한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때마침 오렌지카운티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매년 연례적으로 갖는 영적대각성집회를 수정교회에서 그 교회의 마지막 예배로 장식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 온 영적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한인 교회가 그 영적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마지막 이들 동안 영적대각성집회를 수정교회에서 가진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수정교회당 안에 머무는 동안 여러 미국인 성도들이 들어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연로하신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 동안 지켜온 신앙의 정서가 그들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가버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커다란 슬픔입니다. 만일 믿음의 계보와 세대가 끊어지지 않았

이킬 수 없는 퇴락의 길로 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모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 여러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포스트모던의 특성은 곧 극단적 개인주의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고 그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며 더 나아가 개인과 개인이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특징적인 집단들이 형성되고 그들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각 집단들이 서로 대적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의 대립에서 다원주의와 점목되어 종교적 다원주의로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는 것이며, 사단의 마지막 전략인 뉴에이지운동(New Age Movement)와 결탁되어 결국 모든 사람이 신이 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바로 현실입니다.

왜 제가 이와 같은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 1세대 목사들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모임을 가지

시대적 병폐요, 우리가 넘어 서야 할 난관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서라도 우리 2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 책임은 1세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세대 목회자들이 2세 사역자들을 파트너로 또는 동역자로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1세대 목회자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2세 사역자들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다음 세대 주역이라고도 말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세 사역자들이 쉽게 입을 열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겪은 체험을 어렵게 꺼내어 입을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직원처럼 취급받고 이용당했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입니다. 어떤 의견도 수용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받고 심부름 하듯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입받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2세 사역자들은 혹 다른 교회에서 옮기고 옮겨보지만 계속해서 그

려야 대화가 되고 서로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고 우리 1세대가 세운 교회와 신앙과 선교를 전수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2세 사역자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세 사역자들이 1세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해 온 그 열정은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안 된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아예 결함은 물론 연합조차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여년간 남가주 일대에서 2세대들끼리 따로 모여 EM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이 없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고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2세대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남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요즘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문장명

A: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직장 사장이 불신자면 크리스천이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야 되지만 크리스천이면 한층 더 조심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딤후6:2).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 청년 몇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청년들이 특하면 근무시간 중에 성경공부를 한다는 지 교회 특별집회 때는 말은 일도 끝내지 않고 퇴근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로님이니까 교회 일을 최우선순위로 존중해줄 거라고 믿고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중에 그들을 고용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싶었다면 남들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해 읽고 근무시간 중에는 일에 백퍼센트 집중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에 특별집회가 있어서 일찍 퇴근하고 싶었다면 일찍 출근해서 말은 일을 끝까지 끝내 회사 일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회사의 상사가 크리스천이라면 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어 일한다'고 합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일하는 것은 인간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5를 보면 일하는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노동은 축복... 믿는 상전 더 잘 섬겨야

게 그 넓은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종으로서 세상의 상사들을 주께 하듯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영어성경을 보면 "with sincerity of heart" 즉 어떤 위선이나 꾀부림이나 나태함이 없이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은 "누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스는 눈에 보이는 사장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대충 속일 수 있어도 하늘아버지의 불꽃같은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유지나 출세를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누가 보건 안보건 매순간 최고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유리 회사사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항상 제품의 마지막은 사장님이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직원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많은 부목사와 직원들을 써 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생명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이것에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크리스천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 대강대강,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마무리를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왕하려면 직장생활을 기쁨으로 하여야 합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일해야 합니다. 일하다가 실수했으면 결코 핑계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담임목사청빙

뉴욕의 맨하탄과 가메론 뉴저지 주의 유니온 시티에 위치한 허드슨교회에서는 공석중인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하나님과 잘거친 영혼들을 사모하며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 1. 자격**
 - a.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M.Div 또는 이와 동등)으로 PCA 기법이 가능하신 분
 - b. 5년 이상의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c. 연말: 사모실 때, 한국어, 영어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2. 제출서류**
 - a. 이력서 1부
 - b. 부사 및 가족소개서(성경배경, 신앙경험, 사진 포함) 1부
 - c. 목회비전: 목회 소망 및 목회 철학, 교회관의 및 운영 정책 포함 1부
 - d. 설교 동영상 2회분(CD, DVD, Web-link)
 - e. 추천서 3통
- 3. 제출마감**
2012년 6월 1일
- 4. 유의사항**
 - a.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b. 서류 제출이나 문의사항은 가능한 이메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성립된 분에 한해서만 면접을 위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 d. 개별 통지된 분에는 건강 진단서, 설교 원고 등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 e. 문서는 Word Doc 또는 PDF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허드슨교회 청빙위원회
총무위원장 김진수 장로
무선: Huds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Alt: Pastor Nominating Committee / Elder: Chinsoo Kim
2019 West St, Union City, NJ 07087
E-mail: hudsonpca@gmail.com

허드슨 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영 어:	_____	_____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은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동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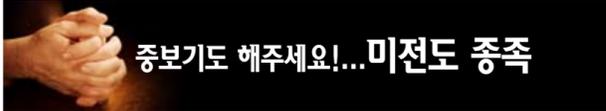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
을
받습니다.

4500번에
불을
붙여
제10
다.그리고
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오리시(ORISI)



약 2천5백만명의 오리시족이 인도에 거주하지만 3만여 명이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에서도 살고 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매년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심한 더운 시골지방에서 산다. 이들은 영양부족과 인구과밀의 피해자들이다. 경제는 농업 의존적이나 토지는 거의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오리시족은 인도-아리아계 언어인 오리야(Oriya)어를 사용한다. 방글라데시가 출현한 것은 인도

에서 무슬림과 힌두교인들과의 분쟁 중에서 나타난 근래의 일이다. 1930년대에 늘어나는 무슬림들은 힌두교인이 지배적인 인도에서 분리되기를 희망했다. 그 결과는 파키스탄이었다. 무슬림이 다수인 방글라데시 또한 인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쌈 지역(a district of Assam)을 연합시켜서 동파키스탄이 됐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서파키스탄에 의해 20여년동안 심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 1971년에 내전이 일어나 독립국 방글라데시가 탄생했다.

삶의 모습
방글라데시는 매년 홍수로 인해 매우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오리시족들은 농부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대다수 중부 및 동부 인도에서와 같이 쌀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작물이다. 밀, 보리, 옥수수가 식용으로 재배되고 황마(jute)가 수출을 위해 재배된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농업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일부 아이들은 농번기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다. 남자들은 씨뿌리기, 쟁기질, 사냥, 낚시 등을 하며 여자들은 밭의 잡초뽑기, 집안 허드렛일, 아이돌보기 등을 한다. 남자들은 물건을 나를 때 장대를 어깨에 걸쳐 균형을 맞추고 여자들은 머리에 물건을 이고 나른다. 오리시족의 전통적인 마을은 비옥한 계곡 강가 혹은 열대 평원지

역에 위치한 대나무 오두막집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집 뒤뜰에 작은 채소밭과 과일나무들이 있다. 홍수가 범람하는 해안지역에서는 집들이 논(rice field)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로써 농부들은 연중 그 곡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오리시족의 문화적인 역사는 예술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여준다. 독특한 민속화와 조각, 건축물로 유명하다. 무용드라마(dance drama)와 민속오페라(folk opera)를 포함한 무용과 음악 또한 그들의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제(the Fertility of the Earth festival) 대규모의 종교의식, 축제가 전 지역에 걸쳐 열린다. 그들은 질병이 악령이나 마술사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내려진다고 믿는다. 그들은 12궁(the zodiac)에 있는 행성과 별들이 개인의 물리적, 정신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으며 문동병은 큰 죄에 대한 벌이라고 믿는다. 민속약초들(herbal folk medicine)과 푸닥거리(exorcism) 그리고 마법사들이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리시족은 죽음이 단순히 하나의 삶에서 다름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이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순환이 그 사람의 절대 영(absolute soul)과 그 영혼이 합쳐질 때까지 지속된다고 믿는다. 야마(Yama)라고 하는 정의의 신이 영혼을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낸다

고 여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방글라데시의 오리시족을 위해서는 현재 단 하나의 선교단체만이 일하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됐고 예수영화도 있다. 그러나 힌두교에 만족하고 이 종교에 헌신하는 것이 이들의 삶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오리시족에게는 훈련된 의료 사역자들, 적절한 보건시설, 충분한 영양공급과 더 많은 교육의 기회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바른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기도가 바로 이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국민 46% 창조론 믿는다

미국 국민 2명 중 1명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미 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10-13일 전국의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창조·진화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인 단 한 번만에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론을 신봉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으며 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응답 비율은 15%에 그쳤다. 이밖에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으나 신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반(半)진화론' 주장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32%로 집계됐다.

2010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신봉자가 각각 40%와 16%였다. 이에 대해 갤럽은 "최근 30년간 생물학, 사회과학 등에서 새로운 발견이 잇따랐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공화당원, 저학력자, 독실한 신자 등은 여전히 다수가 창조론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매주 교회에 간다는 신자 가운데 창조론 신봉자는 무려 67%에 달했으나 진화론을 믿는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그러나 거의 혹은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선택 비율이 각각 25%와 38%였다. 정치성향별로는 공화당원의 58%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답했으나 민주당원은 41%로 비교적 낮았다. 또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창조론 신봉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자(46%)와 대학원 이상 졸업자(25%) 등은 전체의 절반 이하였다.

보스턴 연방항소법원 '결혼보호법' 위헌판결

보스턴의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말 1996년 결혼 보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결정은 연방법

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인 판결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말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된지 몇 주 후에 나온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항소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법안을 무효화 시킨 바 있다.

결혼보호법은 1996년 민주 공화 양당의 협조아래 의회에서 통과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남녀 사이의 결혼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동성부부는 배우자 사망시 받는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이나 군인묘지에 안장되는 등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보스턴의 제1 연방 항소법원은 이 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마이클 부딘(Boudin)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역사적으로 불리하거나 대중적이지 못했던" 집단(동성연애자 포함)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제한을 두었다며 1996년 결혼보호법은 그들에게 "심각한 적대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6개 주와 워싱턴 DC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10만 이상의 동성커플이 결혼했다. 하지만 39개주는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2008년에 통과시킨 프로포지션 8, 즉 주 헌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킨 주민발의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월이 프로포지션 8을 무효화 시켰는데 동성연애자가 그동안 누려왔던 권리를 빼앗음으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하위 연방 법원에서는 패배했지만 내년 결정이 날 연방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토리노 수의는 중세에 만든 까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입었던 것으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의(壽衣·사진)'는 중세시대에 만들

어진 옷이며 이른바 예수님의 수의로 전해진 무려 40종의 가짜 수의 중 하나라고 이탈리아의 저명한 교회사학자인 안토니오 톰바티 교수가 밝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10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탈리아 파르마에 있는 포플라레 대학의 톰바티 교수는 수염 난 인물의 형상을 보여주는 토리노의 수의가 수세기 동안 예수의 수의로 숭상 받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지 1300년이 흐른 뒤 터키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바티 교수는 중세 서류들을 연구했던 19세기 한 프랑스 사학자의 작업을 인용, '토리노의 수의'는 중세 기독교 국가들에서 유포됐던 수많은 수의 가운데 하나일 뿐으로, 이런 수의가 당시 40개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 중 대다수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파손됐다"면서 "이들 중 일부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일부에는 혈흔과 비슷한 얼룩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순백이었다"고 말했다.

'토리노의 수의'는 아마 직물로 만든 것으로, 칼로 찢리거나 고문을 당한 알몸의 수염 난 남자의 앞면과 뒷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19세기말 네거티브 사진에 찍힌 이 수의의 세부 형상이 공개된 이후 이 수의가 보관된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찾기도 했다. 가톨릭교회 측은 이 수의가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며 과학자들에게 실험용으로 샘플을 제공해왔다. 옥스포드에서 1988년 실시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실험결과 수의는 1260-1390년에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애 광고자, 교회홈페이지 동성애자 카페 개설

최근 서울시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올리고, 구청 게시판과 시내버스에 동성애 옹호 광고를 올림으로 동성애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온 이계덕 씨(26)가 교회 홈페이지에 '동성애 카페'까지 개설해 성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계덕 씨는 지난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fgtv.com>)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는 3일 교회 측에 의해 폐쇄됐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씨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 소수자를 포함한 만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 같은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이 씨는 기독교인이며 한때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역 성전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교회의 카페 폐쇄 조치와 관련 "많은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모임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 씨가 개설한 카페를 폐쇄한 것은 카페 개설 약관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회는 "본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개설된 동성애 관련 카페를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나 신앙의 문제에 대해 차별 적용'한 것이 아닌 카페 개설 약관에 따라 지난 6월 3일 폐쇄했다"며 "따라서 그 이상의 의미 부여로 확대 해석해 이슈화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페 약관 제1조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반드시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주교에도 신천지 경계령

이단 신천지가 개신교 계뿐만 아니라 천주교계에서도 이른바 추수활동을 펼치며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인천 교구에서는 최근 "신천지가 주일 미사 후 성당 밖으로 나오는 신자들에게 접근해 성경공부나 피정 등을 이유로 신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위원회에서는 "주일 신부가 허가한 성경공부만 참석할 것과 성당 밖에서 하는 각종 설문조사나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신천지대체 한국기독교연대는 이에 대해 "신천지가 지난 2009년에 천주교 포교계획을 밝힌 이후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에 다니는 기독교인들까지 포교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BOOKS 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92. 성경의 공금증들(13)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11장을 읽으면서, 그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시나 설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필요한 사상이므로 나름대로 상상한 창조와 그 이후의 이야기로 믿는다. 노아의 방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나이가 600세나 된 늙은 할아버지가 모든 종의 동물들이 들어갈 대형 선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던 말인가?” 노아홍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아시아의 홍수 설화를 성경에 각색해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점만 생각해보고자 한다. 노아가 할아버지였을까? 과연 노아 당시 기술로는 초현대식(?) 혹은 첨단 대형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성경은 아담이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 905세... 므델살라 969세, 그리고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된 해 발생했다고 말한다. 우리 주위에서 120세의 나이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만을 믿으려고 하는 세상 과학자들에게 이런 성경의 나이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성경의 나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성경은 과연 신화인가?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들은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C-elegance라는 실험동물에서 dat-2라는 유전자를 조작하면 수명이 3배나 증가

한다. 생식에 관련된 유전자까지 함께 제거하면 수명이 6배까지도 늘어났다. 또, 파리를 섬세 29대에 키울 때에 비해 25대에서 키우면 3배나 더 오래 사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유전자의 발현과 환경이 장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노아는 노쇠한 할아버

유하고 있는 방사성 탄소 C-14의 함량을 통해 짐작한 것이다. 공룡이 살았을 뿐 아니라, 공룡이 아닌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룡처럼 큰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노아홍수 전의 수명이 현재의 약 10배에 달했다는 성경의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성경의 장수 기록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90세만 넘으면 새하얀 머리카락에 노쇠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나머지 800년을 살아갈까 아니면 800년 동안 젊음을 유지하다가 100년 동안 노쇠한 기간을 거치고 죽게 되었을까? 혹은 899년 동안 젊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런 답을 주지는 않지만 ‘oo를 낳고 o백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어 전 생애 동안 건강하게 살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아는 노쇠한 할아버

로 기차에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 522량을 담을 수 있는 부피를 가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 천 마리의 동물들을 1년 동안 안전하게 싣고 있어야 했다.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길이와 폭과 높이의 비율을 보면 넓어질 수 없는 상자였음이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문제는 그 많은 동물들을 8명의 사람들이 돌볼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의 방주를 노아가 그 설계대로 건축할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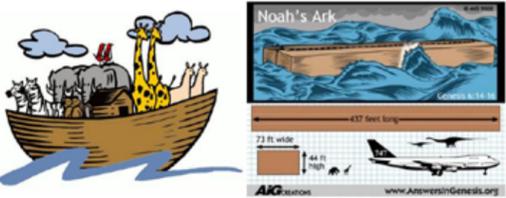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음 속 깊이 어찌면 무의식에까지 배어 있는 인류의 진화론적 발달 과정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현대로 발전해왔다는 진화론적인 믿음만을 교육받고 있다. 따라서 고대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일 것으로 생각되는(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아 시대에는 문명의 발달이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 시대는 이미 철기 시대였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미 청동기와 철기를 다루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10배나 오래 살았고 DNA 돌연변이도 훨씬 적게 가지고 있었으므로 현대인보다 더 건강하고 더 명석하였다. 지식의 축적도 대단하였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피라미드와 같은 고대 문명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노아홍수 당시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상실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새 환경에서 여러 고대 문명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일구었던 것이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재밌게 불렀던 노래였지만 이 노래에는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비 성경적인 사상이 듬뿍 녹아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방주 건축을 마치고 방주에 탑승하던 600세의 노아는 호호백발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건장한 청년 아저씨였다. 성경을 통해 그러한 당시의 모습이다. 그 성경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노아방주 건축 당시 500세 노아는 건장한 아저씨 최적의 유전자와 환경의 철기시대, 현대보다 우월



배가 아닌 노아 방주, 초현대식 상자

하나님이 설계하신 초현대식 상자를 건조한 노아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 아저씨였다.

뿐 아니라 현재보다 여러 배나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보다 10배 더 오래 살았다는 성경기록이 신화로 치부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이재만-최우성 저, “빙하시대 이야기”, 두란노, 2011년 참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전자와 환경이 최적이었을 좋은 환경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들이 있다. 노아홍수 직전에는 현재보다 나무가 100배나 많았다. 이 사실은 석탄 매장량을 통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또 생명체에 해로운 우주 광선이 200배나 적었다. 이 사실은 노아홍수 당시에 묻힌 석탄이 함

지였을 리가 없다.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닥으므로, 방주를 건축하던 당시의 노아는 중년의 건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노아 할아버지”는 성경을 신화로 생각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지 실제 성경 역사 속에 활동하던 노아가 아니다.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보면서 방주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건장한 젊은 아저씨였을 것이다.

노아가 초현대식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방주는 135미터 길이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말씀에 숨겨진 부부 행복의 비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유지하며 그 가운데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남편과 아내 관계의 행복지침입니다. 남자들은 눈에 비취는 여자의 외모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해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정말로 너무나 티를 났습니다. 혼자 있다가 자신과 비슷한 여자를 만나게 되니 기대밖에 나타난 하와가 그야말로 환상 그 자체이었을까요?

이에 비해 하와의 반응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아담만큼은 빠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담이 열광하는 동물들 이름 짓는 일에는 별 흥미가 없고 그저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가 궁금해 나무 결로 혼자서 조금씩조금씩 다가다가 뱀의 유혹하는 소리에 못이기는 척 짹짹 주머니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그다 이미 주어진 복을 놓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왜 하와는 많은 과일 중 하필이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가 먹음직 보양적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영 하나님이 정해진 아담을 적절히 도우라는 자신의 역할이 별로 맘에 차지 않았던 것일까요? 돕는다는 단어가 어찌 “아담은 주역, 나는 겨우 조연이야” 하는 맘이 들어서 별로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담을 더욱 잘 도우려면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아담을 도울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선악과가 하나님이 가진 전지의 능력을 부여하는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것으로 아예 서로가 목욕하고 뱀과 하와가 공모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둠. 마귀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귀찮은 것은 혼자 독식하려는 욕심까지 할아버지로 몰아세워 하나님 성품을 비하하여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면 어떤 감언이설이라도 통할 리가 없지요. 넘겨졌든 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선악과의 근본문제는 love of power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소유하고픈 고만민 탐욕에 있습니다. 생명과 선택했어야 하는 power of love 즉 하나님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자기 자리를 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며 “내 탓이야” 책임전가 할 때 부부관계도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제멋대로 주제 파악 못하고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닳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 당신의 계획대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자 하십니다.

심판은 사정없이 잘못에 따라 주는 벌이고 징계는 다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원래의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부부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어,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남자의 강한 돌봄의 보호 리더십을 원하는(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족될 때 여자는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남자에게는 아내를 다스리고자(리드하고픈)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따르라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자로서의 자취감을 느끼며, 그것을 사랑 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 완전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먼저 사랑으로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겨 아내를 잘 돌봄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매니저로서의 남편 자리를 해내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을 마음을 다해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내조하여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길 원하십니다(엡5:15-33). 아내와 남편사이에서 서로를 최고로 여기고 사모하고 다스리는 사랑의 관계의 질서가 세워진 부부가 되면 보장된 하나님의 천국부부의 길입니다.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00 세례/부제: 오후 8:00 세례/부제: 오후 11:00 www.nhpc.org</p>	<p>맨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mhpc.org</p>	<p>풍고메일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fgmc.org</p>	<p>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부제: 오전 8:00(한국) 주일/부제: 오전 10:15(영국) 수일/부제: 오전 11:30(영국) 수일/부제: 오후 8:00 www.bscc.org</p>	<p>멜렐교회 담임목사: 권용배 주일/부제: 오전 7:3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30 www.melley.org</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대영 주일/부제: 오전 11:0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30 www.bostonpc.org</p>	<p>폴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30 www.pompc.org</p>	
<p>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부제: 오전 10:45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salonpc.org</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0:30(영국) 수일/부제: 오후 11:30 수일/부제: 오후 7:00 www.sionpc.org</p>	<p>시아벨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부제: 오전 10:00 주일/부제: 오전 11:15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영국) www.sibelpc.org</p>	<p>알란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부제: 오전 11:30 주일/부제: 오후 4:0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영국) www.alansa.org</p>	<p>앵커리지델리안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부제: 오전 10:3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 www.anchorpc.org</p>	<p>엘파스델리안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부제: 오전 8:00(영국)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7:30 www.elpaspc.org</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걸 주일/부제: 오전 7: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12:00 수일/부제: 오후 7:30 www.yongpc.org</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부제: 오전 11:00 주일/부제: 오후 7:30 www.onnuri.org</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wshpc.org</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jesu.org</p>	<p>큰루터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8:30 수일/부제: 오후 11:30 www.klpc.org</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 www.tacomapc.org</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형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영국) www.tacomapc.org</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tacomapc.org</p>	
<p>렘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영국) 수일/부제: 오후 8:00 수일/부제: 오후 11:30 www.remipc.org</p>	<p>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만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7:45 수일/부제: 오후 11:00 www.hartfordpc.org</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p>		<p>아가텍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부제: 오전 8:3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영국) www.agatepc.org</p>	<p>에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영국) www.edelpc.org</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부제: 오전 11:00 주일/부제: 오전 11:3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0:30(영국) www.hawaii.org</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부제: 오전 8:00 주일/부제: 오전 11:00 수일/부제: 오후 7:30 수일/부제: 오후 11:00 www.honolulu.org</p>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 주제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남가주목사회와 공동주최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오는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 EM 채플실에서 열린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라는 주제로 열리며 1부 개회예배, 2부 주제 강연으로 2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 토의를 하게 된다. 특히 개척세대와 현재세대, 차세대 사역자들이 1세와 1.5세, 2세 목회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기자회견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간이 있으며 개척세대 및 현재세대 특색강의가 실시된다.

김영대 목사는 "이민교회의 문제는 1세와 2세대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짚고 넘어가 해결하는 길 찾자는 취지로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앙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모색하며 1세신학과 2

세 신학의 조화 및 세대 간의 결속 그리고 1세의 신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모든 세대가 가까워지고 서로 생각과 문화적 삶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로 마련된다.

자세한 문의는 허귀암 목사 (714)308-7308, 최민기 연구원 (714)905-3538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국제신학대학교(ITS)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총 27명 학위수여, 한인졸업생 6명

ITS 학위수여식

국제신학대학교(ITS, 총장 멜룩스 박사) 2012년도 불학기 학위수여식이 9일 오후 7시30분 Chinese Evangelical Free Church(담임 잔

학사사 16명, 신학석사(Th.M) 2명과 MATS 3명 등 총 27명의 졸업생 중 한국인 졸업생은 데이빗배, 임성근, 강성근, 김성양, 고효정,

이은영 등 6명이 목회학석사 학위(M.Div)를 수여받았다.

본교 교무처장 제임스리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졸업식은 데이비드 메킨리 교수가 기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 성가대가 특송을 했으며, 잔 후스 목사가 'To Live Is Christ'(빌1:21, 고전 2:2, 골1:28-2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멜룩스 총장이 졸업장 수여를 인도했다. 또한 이사장 대행 박문규 박사가 졸업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며 졸업생들을 모두 앞으로 나오게 하고 교수들과 목사들이 모두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매노츠 장녹 박사 축도로 마쳤다.



2012학년도 솔로몬신학교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 목사안수식

솔로몬신학교 학위수여식

솔로몬신학교(총장 백지영 목사가)는 제12회 학위수여식을 9일

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엡 4: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백

지영 총장과 총장 메시질르,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부총장), 조세희 박사(한국 목회자연합회 대표), 함 사티아 박사, 지용덕 박사, 이정남 박사 등이 축사를, 정영수 박사(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 총회장)가 권면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지사론의 3명이 박사학위, 서니경의 3명 목회학석사, 노선숙의 3명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한편 학위수여식이 마친 후 거행된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 목사안수식에서 정호영 전도사(은혜한교회)의 4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사진위) ECA 목사안수식 (사진아래) ECA교단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운송 목사, 사무엘 고블 총회장, 로버트 트릴 차기 총회장, 심정욱 목사



(사진위) ECA 목사안수식 (사진아래) ECA교단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운송 목사, 사무엘 고블 총회장, 로버트 트릴 차기 총회장, 심정욱 목사

126년 역사 보수 복음주의 ECA교단 설명회

5일 목사안수식 갖고 24명에게 안수

ECA교단(Evangelical Church Alliance 총회장 사무엘 고블 목사)이 본격적으로 한인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한자게 도약하게 됐다. 동 교단은 1887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조직, 현재 2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CA는 지난 6일 오전 타운배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사무엘 고블 총회장, 로버트 트릴 차기 총회장(7월부터 운영 행사준비), 심정욱 목사, 박운송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ECA교단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ECA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한국교계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단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ECA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완전성과 삼위일체를 믿으며, 성화와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복음주의적 신학의 입장을 가진 단체이다. ECA는 교단이 아닌 협의회 형식의 단체지만 목사안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교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ECA를 통해 안수받은 한인 목회자들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초교과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후보생을 비롯해 교단신학을 졸업했지만 여러 사정상 타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ECA를 통해 안수를 받거나 안수를

준비 중에 있다.

ECA는 또한 듀얼멤버십(ECA멤버십 유지한 채 타 교단 활동가능)을 인정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소속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어떤 형태와 재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회원 수 증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사고시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

목사안수자격은 정규신학교에서 M.Div학위를 받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혼경력자는 ECA 멤버십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동성애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ECA가 소속된 단체는 NAE(미국복음주의연합회), ECFA(복음주의재정협회), 그리고 ICECE(세계복음주의군복역협회) 등이다.

뉴트리비트 미션을 세워 한국 초기 선교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윌리엄 목사가 ECA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ecainternational.org. 한국어 문의는 심정욱 목사 (323-356-0575) 로 하면 된다.

한편 5일 저녁 7시에는 임마누엘 장로교회(담임 엘리자베스 김스젠더 목사)에서 ECA 목사안수식을 개최했다. 다니엘뉴먼 박사(아주사범대학교) 사회로 시작된 이날 안수식은 로버트 트릴 목사(ECA 총회장 당선자)가 열왕기상 13:1-34을 설교했다. 이날 한인사역자 22명 등 최선영 전도사와 클라라운 전도사 등 한인사역자 22명을 포함 총 24명이 안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트랜스포메이션 LA 세미나에서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가 강연을 인도하고 있다

"크리스천 방식으로 살아간다"

쉐퍼드대학교신학대 2012트렌스...LA 세미나

쉐퍼드대학교신학대(학장 살롬기 박사)가 주최하는 트랜스포메이션 LA 세미나가 9일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는 "그동안 교회의 전도와 선교전략은 교회로 초대하거나 교회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지만 트랜스포메이션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를 변화시킴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타겟은 시

장, 교장, 그리고 CEO 등"이라고 밝혔다.

에드 실버소 박사는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은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설명하며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실버소 박사는 세계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소개하며 패러다임은 안경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맞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하나씩씩 무찌르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씩씩 무찌르시겠지만 자신을 통해서 무찌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통해 변혁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며 모든 믿는 자들은 사역자임을 잊지 말자"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일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하기'라는 주제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 '큰 그림: 이 일의 이유와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살롬기 박사가, '사업을 위한 기름 부음'과 '사업, 사업, 도시의 변혁'이라는 주제로 에드 실버소 박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하길, 기쁨의 결과물'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공용회사 LIPPO의 로이아두 타타지 부회장, 그리고 '사역과 사업에서의 믿음, 결실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7전8기의 사나이"의 저자 신 섭 장로가 강연했으며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가림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무: 케빈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오후 8:30(일)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45	
뉴욕셋째마녀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8:00	뉴욕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45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월-토) 목요일예배: 오후 8:00(일) 새벽기도: 오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8:30 새벽기도: 오후 8:30(일-토) 목요일예배: 오후 8:30(일-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8:45(월-토)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8:00(일-토)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자 1부일예배: 오전 7:15 2부일예배: 오전 8:30 3부일예배: 오전 10:15 목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7: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풍어일렌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8: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메디나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전 8:30 목요일예배: 오전 8:30 목요일예배: 오전 8:30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유니온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계철 1부 기도예배: 오전 8:30 2부 기도예배: 오전 10:45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곤 주일예배: 오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주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철호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전 2: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한미음침교회 담임목사: 박재일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함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995-0709 ■ N.Y.: Tel. (718) 886-4000 Fax: (718) 886-0074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문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브라질 새사람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8:30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병관 목사 파라과이선교본부 회장 주일예배: 오전 8:00 목요일예배: 오전 10:3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및 정기 여름특강이 6월 22일(금)부터 본교 캠퍼스에서 열린다. 오전에는 인터내셔널 세미나가 있으며 오후 3시에는 학위수여식, 저녁 7시부터는 여름콘서트가 열린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성경원어연구원 여름특강이 진행된다. 과목은 히브리어 입문으로 강사는 오명환 교수.

▲문의: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뉴욕교협 장학생 선발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2012할렐루아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신청서,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사진 등이 필요하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특전이 있다. 마감은 6월 29일(금)까지 교협 사무실로 하면 된다.

▲문의: (718)358-0074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 유니온시티에 있는 허드슨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청빙위원장 김진수 장로). 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M. Div) PCA교단 가입이 가능하며 5년이상 풀타임 목회경력, 연령은 4, 50대 한영 이중언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와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비전서(목회소명, 목회철학, 교회관리 및 운영), 설교동영상 2회분, 추천서 3통이 필요하다. 마감은 8월1일까지.

▲이메일: hudsonpca@gmail.com

비전파워오병이어 청소년 캠프

청소년 사역단체 비전파워오병이어(대표 김요한 목사)가 "십자가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6월 25-27일, 28-30일 2회의 청소년 캠프를 펜실베이니아 라마다인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수 배(Gordon Faculty & AME director/founder), Melissa Falk(케네디컷 선교교회 전도사), Tiffany Michelle(맨하탄 Time Square Church 뮤직디렉터), 방준영(뉴호프처치 전도사), 김요한 목사 등이다. 참가대상은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이며 참가비는 130달러. 온라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비전파워는 1998년 한국에서 시작돼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사역을 시작, 매년 여름과 겨울 비전캠프,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스쿨처치 운동, 전국투어, 해외 비전캠프 등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미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홈페이지 visioncamp.com

▲문의: (551)486-1148

보수연합 회장입후보 등록 공고

마감 6월23일, 회원에 한해 자격부여

지난달 21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보수연합이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뉴욕장로성가단이 찬양을 하고 있다

뉴욕장로성가단 제 8회 정기연주회 성황

블랙 마운틴 한국 초기선교사 기념비 건립 후원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손성대 장로, 지휘 이정진 장로) 제8회 정기 연주회가 지난 10일 저녁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렸다.

블랙 마운틴 한국 초기 선교사 기념비 건립 후원을 위해 열린 이날 연주회에서 뉴욕장로성가단은 '어지신 목사', '날 오라 하신다', '넘치는 주의 사랑', '주만 위해' '예수는 참 포도나무' 등의 찬양을 불렀다. 이날 특별출연으로 뉴욕권사선교회합창단, 뉴욕로리엣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조애실, 바리톤 이요한 씨가 공연했다.

단장 손성대 장로는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며 뜻 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에 감사한다"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가단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블랙마운틴 한국 초기 선교사의 마을 기념비 동영상이 상영됐으며 김영호 이사장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장로성가단은 1996년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장로들에 의해 초교파로 창립돼 지난 16년간 교회사회 찬양, 초청연주, 찬양선교,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 음악회, 한국의 전국장로성가단 찬양제 참석 등 다양한 선교활동과 사회봉사를 통해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등록 자격은 보수연합 임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에 한한다. 접수기간은 6월23일(토)까지이며 서류 제출처는 144-31 41Ave. #1F, Flushing, NY11355.

보수연합은 사이버 이단, 종교혼합주의, WCC 배경과 보수 정통신학과 신앙 고수를 기치로 지난달 21일 임마누엘교회(담임 장시문 목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917)699-6036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전단지·포스터·강사 홍보동영상 준비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아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12일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교협은 이날 대회 전단지 및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또 강사 이태희 목사의 홍보 동영상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1부 예배는 김영규 목사 인도로 기도 이대연 장로(이사장), 성경봉독 전희수 목사(실내안내분과위원장), 설교 이규섭 목사(호스칭분과위원장), 특별통성기도, 광고 현영갑 목사(서기), 축도 이병홍 목사(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규섭 목사(퀸즈한인교회 담임)는 "우리의 소위(왕하7:9)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난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개입뿐"이라며 "이번 할렐루아대회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목사는 "본문을 보면 나병환자들은 병으로 인해 성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게 됐다"며 "문둥병이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이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네, 그들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자 자책했다"며, 즉 전하지 않고 나만 누리게 된 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소위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선하지 못하다. 내가 먼저 믿어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겨 천국

에서 그들을 만나는 일이 생기를 바라며, 이번 할렐루아대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김성은 목사(유년분과위원장)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박맹준 목사(진행위원) △할렐루아 2012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강사, 청소년, 어린이, 준비위원, 참석자, 낱사, 안전사고, 대회 후원/최운돈 목사(부회계)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날 어린이대회 강사 변현수 전도사(뉴욕조대교회)가 참석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대회에는 4명의 목사와 교사 23명이 준비돼 있다고 발표했다.

2부는 준비진행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장 양승호 목사는 "실질적인 복음화가 이번 대회를 통해 이뤄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며 "또 안전사고 및 퀸즈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히 이번 성회를 통해 뉴욕교계와 교협을 중심으로 하나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 이희선 목사는 대회 준비상황을 전하며, 이번에는 마지막 집회 마지막 시간에 어린이대회 참석자들이 합창하고 축복받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마무리기도는 장석진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문화단체 이노비, 한국 봉사활동 본격시작

뉴욕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투병중인 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해 온 이노비(Enob, 대표 강대욱)가 한국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인 다문화가정까지 봉사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이노비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달 24일 전라남도 완도를 찾아가 다문화 가정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뮤지컬 콘서트를 마쳤다고 전했다(사진). 이번 공연에는 완도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이노비와 더불어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함께 개최해 3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참석, 이노비가 준비한 뮤지컬 콘서트를 즐겼다.

이번 공연은 이노비의 공동설립자이자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서울예술대학 박윤영 교



이노비가 공연을 하고있다

수와 함께 9명의 뮤지컬 배우들과 전문 연주자들의 재능 기부로 마련됐다.

강 대표는 "올 10월경 다시 완도 지역에 찾아가 더 깊은 섬을 방문해 작은 숫자일지라도 문화 혜택을 누릴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장애인복지센터에서도 무료 공연을 열 계획"이라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동포사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부탁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뉴욕전도대학교 졸업예배를 마치고 졸업자들과 기념촬영

뉴욕전도대학교 졸업예배

뉴욕전도대학교가 지난 5일 졸업예배를 드리고 3명의 일꾼을 배출했다. 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이날 예배설교는 한재홍 목사(뉴욕신광교회 담임)가 맡았으며 이날 김성자, 조복희, 조은희 씨 등 총 3명이 졸업했다. 뉴욕전

도대학은 방학 중에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 교당 앞에서 노방전도를 진행한다. 또 6월 19일, 7월3일, 8월7일은 기도원을 찾아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뉴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뉴욕전도대학교)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박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 생활개혁신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권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운영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New York Kom Tang

24시간 운영

연호번: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타월 / 교회해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복음의 능력, 새 신분을 경험하라!”

OC교협 영적대각성집회 수정교회서...마지막 집회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교회협 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오정현 목사(서울 사랑의교회 담임)를 초청하여 오렌지카운티지역 교회연합 영적대각성집회를 7일과 8일 양일간 수정교회에서 개최했다.

엄영민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한기홍 목사(증경회장) 기도, 윤덕곤 목사(부회장) 성경봉독에 이어 오정현 목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롬5:1-11)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대와 알바인침례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박해경 집사(남가주사랑의교회)가 헌금송을 불렀다. 둘째 날 집회는 민경엽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돼 손병렬 목



OC교회연합 영적대각성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오정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사(부회장) 기도, 오세호 목사(부회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의 나침반교회 찬양대가 각각 찬양했다.

둘째 날 오정현 목사는 자신의 신

앙여정을 소개하는 간증과 함께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영적 성공이란 육신에 영적인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영이 지배하는 도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소명 받는 자인가?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 소명을 확실히 알면 나이가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언어처럼 확고히 살 수 있다”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 수정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세계비전교회 김영빈 담임목사 선임

7월 22일 취임예배

샌퍼난도 밸리 소재 세계비전교회 제2대 담임목사에 김영빈 목사(40)가 선임됐다.

세계비전교회는 지난달 27일 공동의회를 통해 김영빈 목사 청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르헨티나로 가족을 따라 이민간 김영빈 목사는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뉴욕 나약칼리지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과점(M.Div)을 마쳤다. 이후 미 동부지역에서 주

로 EM청년 사역을 담당했고 남가주사랑의교회와 어바인 베델한국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냈다. 한편 세계비전교회의 김영빈 담임목사 취임예배는 오는 7월 22일(주) 갖는다.



김영빈 목사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 14주년 기념예배에서 사회를 보는 바다윗목사

“가정과 지역사회가 행복하길”

생명의전화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생명의전화(대표 바다윗 목사) 창립 14주년 기념예배가 9일 오후 5시30분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바다윗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제3기 상담봉사원 김철수 목사(은혜승리교회) 대표기도, 이경희 권사(제16기 상담봉사원 회장) 성경봉독, 미주사모&권사 코랄(지휘 오성애 권사)이 특별한 송을 했다.

이어 장재정 목사(브리지교회 담임)가 ‘생명의 언어’(잠18:20-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장)의 축사 후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봉사자 감사장 및 메달 수여

의 시간을 갖고 대통령 봉사상을 생명의전화, 기관상으로는 이기수, 홍정자, 엄성현 등이 개인상을 받았으며 10년 근속 상담봉사원상 조정심, 1000시간 상담봉사원상 홍정자, 홍수지, 700시간 상담봉사원상 제이스박, 양준만, 300시간 상담봉사원상 헬렌권, 김민좌, 윤용구, 이수하, 1년 근속상담봉사원상 강양임, 노혜란, 우정희, 이윤수, 최기분, 최정숙 등이 받았다.

이날 바다윗 목사는 “생명의전화가 14주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전화로 인해 동포들 가정에 불행한 일을 예방하게 되며 지역사회가 더욱더 행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이름값 하는 교회’의 저자 조명환목사가 독자들을 위해 저서에 사인을 하고있다

“영혼에 유익되고 기쁨되는 말 전하라”

조명환 목사의 ‘이름값...’ 출판기념회

‘이름값 하는 교회’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7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열렸다. 저자 조명환 목사는 크리스천 위클리(전 크리스천뉴스위크) 발행인으로 그동안 크리스천위클리에 게재했던 칼럼 ‘쓴소리 단소리’를 묶어 한편의 책으로 만들어 크리스천위클리 창간 10주년을 기해 발간했다.

이날 행사는 양현승 목사(살롬커뮤니티센터 대표) 사회, 황기호 목사(기도, 박재호 목사(미주웨슬리언 연합회장) 설교, 송정명 목사(미기총회장/월드미션대 총장), 변영의 목사(교회회장) 축사, 독후감 이민미(시인), 축도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말씀을 들은 박재호 목사는 ‘짜르는 채찍, 잘 박힌 못’(전12:9-12)이란 제목으로 “말은 수없이 많지만 그 말 중에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다. 우리는 영혼에 유익이

음악을 들려주고 이벤트를 하는 대신 확고한 신분의식을 심어줬다면(영적 재산이 있었다면) 가톨릭으로 넘어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분인지 알기위해 건강한 음식,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하며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집회는 손인식 목사(베델한국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집회장소인 수정교회는 그동안 개신교의 상징적인 교회로 인식돼 왔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회를 마친 다음날인 9일부터 가톨릭으로 넘어가 온 교계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한편 가든그로브 수정교회는 명칭이 ‘가톨릭 오렌지카운티 대성당’으로 변경됐다. 로마가톨릭 오렌지카운티 교구 지도자들은 지난 9일 가든그로브의 성골롬반 성당에서 열린 성직자 서임식에서 수정교회를 가톨릭 대성당(크라이스트 캐세드럴&파더 크리스토퍼 H. 스미스)이란 새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내 마음의 풍경소리” 출판기념회

고광이 시인(크리스찬문인협회 사무국장)의 두 번째 시집 ‘내 마음의 풍경소리’ 출판기념회가 30일(토) 오후 5시30분 작가의 집(2410 James M. Wood Bl LA)에서 열린다.

▲문의: (310)612-9580



예비결혼학교 강사훈련

예비결혼학교 강사훈련이 미주두란노서원에서 오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교회 청년회 담당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본 훈련은 FBM(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인 금병달 목사·김정진 사모 부부가 △결혼이 늦어지는 12가지 이유 △스킬 친밀감 증진 방법 △남녀 차이 이해와 성적 정체성 확립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배우자 선택 등의 주제로 강의한다. 등록비는 점심식사 포함 40달러.

▲문의 (714)287-2458

하나님의꿈의교회 6주년 감사예배

라크라센타 하나님의꿈의교회(담임 권태산 목사, 6235 Honolulu Ave. La Crescenta 91214)는 개척 6년을 맞아 오는 24일(주) 오후 5시 감사 예배와 함께 브라이언전 전도사의 안수식을 갖는다.

www.goddreamcenter.com
▲문의: (213)820-7646

LA기운실포럼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는 오는 25일(월) 오후 7시 ‘통일을 앞당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캘리포니아국제대학교(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3130 Wilshire Bl)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윤환철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박문규 학장, 성현경 목사, 최순교 탐복인 사역자 패러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문의: (213)387-1207

한인기독합창단 제 50회 정기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제 50회 정기연주회가 7월 1일(주) 오후 7시30분 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린다. 본 음악회는 KCCS 챔버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며 황해경, 정희숙, 전승철, 김명지, 권상우 씨가 솔로로 선다.

▲문의: (213)385-4149/210-3283

휠체어 사랑이야기 ‘박모세 목사 독창회’

살롬장예언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하는 제 9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가 7월 8일(주) 오후 7시 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박모세 목사 독창회로 열린다. 본 콘서트는 숙명하 모니와 남가주농악교회, SDM 찬양팀이 찬조출연하고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위클리, 미주기독교방송, 크리스천헤럴드가 후원한다.

▲문의: (323)731-7724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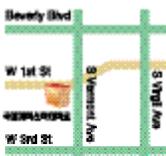
본교의 사명과 특징

본교는 오직 성경에 뿌리를 둔 개혁 보수주의 기독교 신학교로서 정례 사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여 교회와 선교, 교육 등 기타 분야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킨다. 이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로서 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이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토록 육성하는 것이다.

1. 본교는 1977년도에 개교한 미주 최대 교단인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KAPC 미주한인대수교 장로회) 직영 대학 및 신학대학원이다.
2. 본교 졸업 후 KAPC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선교, 교수 및 기타 사역을 할 수 있다. KAPC는 북미주 장로교회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정회원 교단이다.
3. KAPC는 한국대만예수교 장로회 총회(사당동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신학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회와 행정교류를 체결하였다.
4. 본교는 캘리포니아주정부 교육국 R.P.E.의 정식인가를 받았다.
5. 본교는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학생 120명 입학한다.
6. 본교 졸업과 교단 안수 후 미군 군복으로 사역할 수 있다. 현재 KAPC교단에는 미군복 21명이 사역하고 있다.
7. 본교는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을 통하여 학생이 현재 있는 곳에서 Internet Online 으로 학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8. 본교는 성령강화, 근로장학금 등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이따가 지 장학금 혜택이 있다.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Email: iruskapc@yahoo.com

총장 황은영 박사



2012년 가을학기 학생 모집 안내

- 기독교문학사(B.A.C.S.) - Undergraduate Program**
입학자격 - 고졸, 이와 동등 학력 소지자, 세례교인
 - 기독교학 석사(M.A.C.S.) - Graduate Program**
입학자격 - 대졸, 학사 학위, 이와 동등 학위 소지자, 세례교인.
 - 목회학 석사(M.Div.) - Graduate Program**
입학자격 - 대졸 학사학위, 동등 학위 소지자, 세례교인.
 - 유치원 원장, 교사 자격 프로그램**
Preschool Director & Teacher Certificate Program
입학자격 - 고졸, 이와 동등 학위 소지자.
 - 가을학기개강 : 2012년 8월 20일(월)
 - 영성수련회 : 2012년 8월 28일(화), 27일(수)
 - 신입생 등록기간: 7월 11일(수) ~ 7월 25일(수), 2012년
 - 재학생 등록기간: 7월 23일(월) ~ 8월 3(금), 2012년
- 입학상담, 유학비자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유학상담: 김남을 대학원장
입학상담: 나 벤자민 교무처장

“주사파·종북 척결!” 기도 함성 드높아 교계·시민단체 성명·대규모 집회

“탈북자는 변절자다”라고 폭언을 한 임수경 민주당의원 등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들과 북한 주종 세력에 대한 교계 보수진영과 시민단체의 반감이 치솟고 있다. 에스더기 도운동과 바른교육교수연합, 밝은 인터넷,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20여 개 기독교·시민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2만5000 탈북민을 변절자로 만든 종북의원 임수경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퇴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억압과 굶주림으로부터 자유와 생명을 얻기 위해 죽을 고비를 넘어 남한에 온 2만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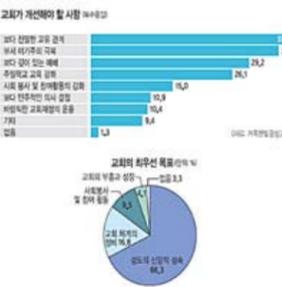
의 탈북자들을 변절자, 반역자로 매도하는 임 의원은 절대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합당에 대해서도 “이런 막말을 한 의원을 당 차원에서 감싸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종북 논란이 예민하게 불거진 시기에 민주당합당의 대북 정치 성향에 대한 정체가 국민 앞에서 천명돼야 함에 예외가 없다. 만약 민주당합당이 임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임 의원의 막말이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당 차원의 노선을 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를 잡은 탈북민 대표 주에다(가명)씨는 “당신은 굶어보았는가? 당신은 북한 감옥에서 인권유린 당해 보았는가? 당신은 굶어 죽어가는 자식과 혈육을 지켜보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장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씨는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폭언하는 임 의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과 탈북자들의 생명을 가혹한 폭정으로 백성들을 학살하는 북한 정부의 총부리 아래

서슴없이 내어줄 변절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탈북민 교회와 북한선교단체·사역자 연합체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다면 품위 있는 행동으로 처신해야 한다. 임 의원은 20여 년 전 평양을 방문했던 철없는 시절에서 변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청교도영성훈련원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 300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헌법정신 부인하는 통합진보당 해체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고 ‘종북 세력 척결’ 구호를 외쳤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 설문조사

교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성도의 신앙 성숙’을 꼽았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답한 교인은 4.1%에 불과했다. 경기도 고양 거북나룻길광성교회(정성진 목사)가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해 9-10월 여론조사 기관인 G.H.코리아에 의뢰한 ‘교인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63명 중 가장 많은 66.3%가 ‘성도의 신앙 성숙’을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꼽았다. 다음으로 16.8%는 ‘교회체계의 정비’, 9.5%는 ‘사회봉사 및 활동’이라고 답했으며, ‘교회부흥과 성장’이라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교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보다 친밀한 교우관계’가 37.2%로 가장 높았다.



교회로서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답했다. 교회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을 알아보기 위해 만일 교회를 떠난다면 어떤 이유일지라는 질문에 교인 10명 중 3명 정도가 ‘대형 교회로서의 문제를 꼽아 교회 규모가 큰 것이 가장 큰 잠재적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사·지역적 위치’를 꼽은 교인은 17.5%,

‘종자연 = 불교단체’ 명백한 증거 부정 2009년 불교계단체일동 성명서에 명단 있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이 친불교 수준을 넘어 확실한 불교단체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로써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교가 종자연을 동원해 개신교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공격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2009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일동’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성명서를 12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성명 발표에 종자연은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불교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종자연은 200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행사에서 “불교를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면서 조계종 총대종관음종 총회장 등 불교계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배병태 종자연 사무국장은 12일 “종자연은 불교단체가 아니다”며 발뺌했다. 배 국장은 국민일보 기자가 “2009년 불교단체 명의로 낸 성명서에 종자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으나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들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자연은 불교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전히 종자연을 두둔할 뿐 연구용역 취소 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와 종자연의 관계 때문에 종자연이 연구용역에 선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다

른 관계자는 “종자연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고자료일 뿐 어떤 권고나 의견을 표명할지는 인권위가 하게 된다”고 변명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시민단체를 표방하며 1999년 설립된 참여불교계연대 산하 기관이다. 2005년부터 미션스쿨 내 종교교육은 물론 사랑의교회 건축, 교회 내 투표소 설치, 기도 세리머니, 고려은단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200여 차례 논평과 세미나 기자회견 캠페인 등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반면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사업이나 사찰투어 등 징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성도의 신앙 성숙” 66% “교회 부흥과 성장” 4%

이와 비슷한 34.7%는 ‘부서 이기주의 극복’이라고 응답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우관계가 깊지 못하고 많은 부서가 경쟁하듯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서 이기주의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보다 깊이 있는 예배’(29.2%), ‘주일학교 교육 강화’(26.1%), ‘사회봉사 및 참여활동의 강화’(15.0%), ‘교육프로그램 강화’(11.9%),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10.9%), ‘비합리적인 교회재정의 사용’(10.4%)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주일학교 교육 강화’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해 어린 자녀들의 교회 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냈다. 응답자 교인 중 27.3%는 ‘대형

‘교우와의 갈등’ 11.9%, ‘교회건축 문제’ 7.1%, ‘교회운영 문제’ 6.9%, ‘예배문제’ 5.6% 순서로 나왔다. ‘목회자와의 갈등’은 가장 낮은 3.8%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려스러움’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55.9%는 ‘매우 그렇다’ 35.9%는 ‘조금 그렇다’고 답해 91.8%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개인 신앙 성장에 저해가 되는냐’는 설문에는 6.5%가 ‘매우 그렇다’, 20.9%가 ‘조금 그렇다’고 답했으며, 18.4%는 ‘그저 그렇다’ 34.2%는 ‘별로 그렇지 않다’, 18.6%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해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개인의 신앙 성장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연 대광고 사태개입 후 학원선교 크게 위축” 교목 4인, 종자연과 미션스쿨 교육 현실 밝혀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의 학생인권문제 개입이 기독교계 사학의 종교적 자율운영권을 침해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션스쿨에서 시무하는 교목들은 차체에 종자연의 반(反)기독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향후 미션스쿨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외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대광고에서 만난

김용관(56·서울 오산고) 원광호(58·대성고) 우수호(43·대광고) 김종화(42·명지고) 교목들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이 대광고 사태를 지렛대 삼아 학내 종교자유 문제를 이슈화시킨 뒤 기독교 사학의 체플과 종교 교육 시간을 제한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교육 지침이 내려왔으며, 학내 신앙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학내 신앙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자연 연

구용역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학생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을 강제 배정시키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목들은 “종자연이 제기한 학내 종교자유 침해사태와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관련 장학지도 계획’이 놀람도록 일치했다”면서 “종자연이 막강한 인적·물적·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해 미션스쿨을 관리·감독 하도록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목들은 “대광고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한 장소에서 모여 특정 종교의 식 실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종

교의 의식 활동을 교과 내용에 포함한 지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종립학교와 건학이념에 맞는 교직원 임용조차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작 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학내 종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자연과 같은 외부단체가 작은 문제 하나를 발견해 문제를 선동하고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목들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종자연은 인권위 연구용역을 지렛대 삼아 대광고 사태 이후 형성된 종교교육 통제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발 “생명 윤리 어긋나고, 퇴폐적 성문화 조장”

[CBS]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사후진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종교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윤리에 어긋나고 퇴폐적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사후피임약이 수정란을 파괴하고, 수정된 배아의 자궁 착상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낙태약”이라며,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또, “응급피임약을 손쉽게 구입하게 되는 경우 퇴폐적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어느 피로회복제처럼 전문 의사와 상담없이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사후 응급 피임약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시켜 불법 낙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정윤 사무처장은 “최근 한 상담에서 이약을 과신해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여자친구가 결국 임신을 해 낙태한 상담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사후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526개 품목에 대해 의견 수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에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복음·교육선교 넘어 한국근대화 초석 놓아” 아펜젤러 순교 110주년 국제학술대회

서울 정동제일교회가 헨리 아펜젤러(1858-1902) 선교사의 순교 11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10일 개최한 ‘아펜젤러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족들이 펼친 사역을 소개하고 그 희생정신에 따라 한국교회가 복음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리스 데이비스(미국 드류대) 교수는 ‘헨리와 엘라 아펜젤러, 그리고 미국 선교 운동’ 발제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해외선교 결단은 단 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19세기 형성된 거대한 선교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면서 “그는 1880년대 부흥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선교사역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목적이자 확신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교수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전도와 선교에 대한 헌신이 미국 기독교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했다”고 소개했다. 한규무(광주대) 교수는 127년 전 내한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교육선교는 물론 한국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아펜젤러는 고종과 친분관계를 맺고 독립협회를 적극 지지·후원하고 독립신문의 편집·발간에도 관여했

다”면서 “배재학당의 학생조직이 이런 일에 관여하면서 그가 설립한 정동교회와 배재학당은 한국 기독교 및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이화사학연구소 박사도 “아펜젤러 선교사의 팔자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인 엘라 아펜젤러는 이화여대를 세계 최대 여자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여성교육에 절대적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성)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신학교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철학과/ 영예학과

Toll Free 1-800-281-212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6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전미주와 해외 44개국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수첩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본 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5-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3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무주소			
⑥ 사무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장학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번은 해당사항이 표시를 아세요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바구니 / 장례 꽃
한국 꽃꽂이 / 탁은내 무료택배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경도용 플래시 판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및화평

2702 N.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08
TEL. 818.382.4388 Fax: 818.382.4384 Email: wordoflife@earthlink.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 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밝히는
미주크리스천신문 50명
기초세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으십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선교지 편지

우간다

쿠미프로젝트

우간다에서 쿠미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김선영 선교사(의사)가 세계의료선교대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귀환한 뒤 선교편지를 보냈다. 쿠미대학교 부설 병원을 설립하고 열악한 환경의 우간다인들에게 복음과 의술을 함께 전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독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대된다.

▲이메일: sykim@cnu.ac.kr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그런대로 비가 와서 물탱크에 물도 조금 차고 해서 생활이 조금은 편해졌는데 또 요 며칠은 비가 오지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푸르른 들과 파종 끝난 밭의 채소들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 5월 중 첫 소식은 드디어 의과대 건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완공공사가 7일경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예상보다 조금 덜 들게 되었고(6만불), 가능하면 6월 실사 전까지 마쳐야 하겠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튼튼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4-6일에 우간다 보건당국의 위임을 받은 의사협회위원들이 실사를 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일도 잘 마쳐지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쿠미대학교가 섬겨야 할 지역(8-16개의 도: DISTRICT)에 학교를 좀 더 잘 알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여 도지사들과 보건 및 교육담당자들, 병원장들, 교회 지도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물론 보건당국에서도 지역의 성원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기에 이를 보여주기 위함도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한국대사님께서도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셔서 성원하고 있음을 표하고 지역지도자들과 현안도 의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는 유덕중학장님, 황의두부학장님, 정영철IT대학장님, 유형열 목사님들 모든 분들과 Opon교부

처장 등 모든 직원들에게 지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5월 중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의료선교대회 참석차 가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여 총대학교와 "교환교수제 협약"을 드디어 체결하였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시간을 내오셔서 장, 단기간으로 강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학자 모임인 "나눔과 기술"과도 MOU를 체결하여 강의 및 적정기술 보급에 동역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설 예정인 여러 농, 공계학과에의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전주 바울교회 원팔연 목사님과 미국 워싱턴성광교회 임용우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변함없는 동역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일을 위해 최동환 장로님과 은상기 목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뉴욕에서의 한미의료선교대회에서는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특별히 적정기술과 관련된 선교단체 및 의대 및 병원사역을 위한 선교단체들과의 만남으로 더욱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의대를 준비하는 단체들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가능한 한 공동 사역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학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과대의 동 건축마무리 공사 외에 학생 및 교직원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빗물저장 장치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 울타리 밖을 공공도로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여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울타리에 나무들을 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도와주시는 기아대책 정정섭 장로님과 여러 간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제이오텍(김진익집사님)에서 마련해주신 여러 기자재와 현미경 등이 지난 5월 중순에 도착되어 6월 25일경에 케냐 톰바사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바로 쿠미대학교로 와서 통관수속 및 제반 납세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담당할 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진익 집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미프로젝트에 대해 김선영박사가 설명하고 있다



쿠미의과대학 강의동 앞에서

○ 또 5월 중에는 총대학교 농생대학과 의전원 교수님들이 교우부와 코이카에 우간다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주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황의두 선교사님은 의대부학장 일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직접 만들기도 하실 텐데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3월에 들어오셨던 김수덕 선교사님은 사정에 의하여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를 맡아 주실 장기 또는 단기(2-3달)사역자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컴퓨터 구입 후원에도 여덟 분(박성광, 박종수, 심은섭, 이경호, 김진성, 최홍복, 무명, 무명)이 함께 해주셔서 19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차 목표는 50대입니다.(대당 50만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 쿠미프로젝트 후원은 새로이 9명(이용석, 안국환, 이준철, 이

영, 장재형, 문중하, 이현장, 정효숙, 베네디다교회)이 정기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후원은 김후원으로 해주신 분 외에 1명(이규승)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우간다의사협회가 보건부를 대신해서 현지실사를 나오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정치, 종교지도자들에게 우간다 쿠미대학교에 대해 설명하고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들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방문하는 실사단에

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이었는데 모든 분들의 협력으로(특히 우간다주재 한국대사님도 참석해주셔서) 잘되었고 실사단의 실사도 잘 끝나서 이제 마지막 방문인 교육부 실사만 받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마쳐지면 내년 1월 중에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미주지역에 계시는 기독교대교수님들 특히 기초의학에 관여하시는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겠지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쿠미 땅에서 김선영 드림

암환자 모임 '새생명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



선교편지

뒷동산에 진달래꽃이 붉게 물들고... 하얀 메밀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녘... 초가집 지붕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그림 같은 내고향 강원도 평창...

언덕 위 초가집에서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의 상처만이 남아 있는 초가집 사랑방 예배당에서 첫 신앙을 시작한 나는 주님을 만나고, 평생토록 결혼도 안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민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의관인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의사인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의료선교를 하겠다고 기도하던 중, 남편은 1972년 미국병원

에 취직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첫 돌이 지난 아들을 데리고 신학을 공부하고(아들은 82년 미국에 들어옴) 왕성교회에서 9년 동안 심방전도사로 사역하다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0년도 남편을 다시 만나 새로운 가정과 의료선교의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2004년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던 중 암환자 모임인 "새생명선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005년 1월 강해진 내과에서 6명의 암 환자들로 첫 모임을 시작하여 매월 정기 모임, 매주 암 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암 수술 후 치료 중에 있고 또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과 "새생명선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암 환자 모임의 목적은 재발방

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사명으로 알고 암 환자모임을 시작했는데 모임에 갔다보니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매년 "암 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병원(암 전문의)을 하던 남편과 앞으로 "새생명선교회"를 더욱 발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2009년 갑자기 남편은 심장마비로 영원히 의료선교를 할 수 없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저에게 사랑을 의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알고 또 다시 힘을 얻어 암 환자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 모임에 나오는 회원들 중에는 치료 중에 있으면서도 렌트비가 없어 홈리스 센터를 전전하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고, 치료 중에 있는 부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해 갈 곳 없어 방황하는 회원도 있고, 가족 없이 하늘나라 간 회원을 장례식도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동안만이라도 거할 수 있는 장소와 "새 생명선교회" 모임의 장소 구입을 위해 많은 분들의 후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뉴욕미션 오케스트라초청 제6회 "암 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6월 28일(목) 7시30분 후러싱 타운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음악회 참석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718)460-5506 (646)737-6728

이메일: shim4412@gmail.com



회원야유회.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심의례 전도사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풀려나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기성/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화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 2300 Ansi Lumens \$699
- 2600 Ansi Lumens \$799
-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음악

새로운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의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서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양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E7 미기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 바르고 달린 기법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트랙 고정용 스피커
- USB 호스트 가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역대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히드수정기대상

LED LAMP를 설치한 뒤-는 장광을 절약하여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 100% 30000 원

대부분의 주문은 24시간 내 배송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방총회본부에 헌정

대부분의 주문은 24시간 내 배송됩니다.

순간적인 주문에 - 배송 시에도

여과에도 다양한 미국 헬라성구사 크리스탈 성구사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6)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된 진석이

민스터 중학교에서 항상 전교 1-2등을 다투던 진석이는 인디애나 주에서 열린 토폰대회에서도 1등상을 받아 전국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실력과 자신감을 갖췄다. 하지만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는 미 전역은 물론 세계 45개국에서 선발된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 처음에 진석이는 그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 끼어 고군분투하며 지냈다.

여름방학이면 대학에서 주최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까지 받았던 진석이라 그곳에서도 처음부터 잘 해낼 것이라 기대했는데 첫 학기에 난생처음으로 C 학점 하나를 받아 진석이가 스스로도 무척 낙심했고 부모님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다행이 1년 정도가 지나자 최고 우등생에 속하게 되었고 리더십도 발휘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진석이가 졸업하던 해 필립스 엑서터의 졸업생 300명 중 10퍼센트인 33명만이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진석이었다.

진석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필립스 아카데미 방송반에서 DJ로도 활동했고 운동이나 예술 방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대학 4년을 공부한 후 의과대학원에서 다시 4년을 공부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과정을 2년에서 3년 속성으로 끝내게 하고 의과대학원 과정을 바로 진학하게 하는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석이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7년제 프로그램과 토마스제퍼슨 대학의 6년제 프로그램에도 합격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진석이를 보고 무척 놀랐다. 초등학교 시절의 절반을 영재가 아닌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던 진석이가 명문고 필립스 아카데미를 거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니 놀랄 만도 했다. "영재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는 것을 진석이와 우리 부부가 입증한 셈이다.

우리 부부는 그때 '질 좋은 교육은 가장 좋은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진석이의 진학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진실로 입증되었다. 사실 여름방학 때 대학에서 열리는 영재교육을 받는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다. 게다가 진석이는 민스터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로 전학했는데 그러려면 조그만 집에 살면서 그 뒷감당을 해야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느냐고 놀랐고 혹자는 사치나 낭비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해도 아이들이 좋은 교육만큼은 반드시 시켜준다"는 뚜렷한 목적과 신심을 가졌고 나는 남편을 지지했기 때문에 주저 없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버드 대학 입학을 앞둔 진석이는 자신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며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는 아버

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턱없이 능력이 부족한 자신이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 낙심할 때마다 아버지는 "시간을 두고 열심히 하면 결국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얼마든지 초일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니 절대 걱정하지 말거라"고 이야기해주었고, 진석이는 그것이 현실로 입증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썼다.

진석이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대학생활을 보냈다.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진석이는 하버드의 대 부속 매사추세츠 안과병원에서 교수들의 리서치 어시스턴트로서 연구를 돕고 수술과정을 견학했다.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싱가포르 안과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석이는 예전에 한국에서도 방영했던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나오는,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는 학생이 아니었다. 기타를 즐겨 연주했고 창의력을 발휘하기를 좋아했던 진석이는 드라마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뮤지컬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버드 대학은 매우 진보적인 곳이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에게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겪는 딜레마였지만 진석이는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다행히도 학생 때부터 남편을 후원해 주셨던 맥닐 씨 부부가 매년 8월이면 진석이와 진영이를 데리고 CFO(Camp Far Out, 보수정통 기독교가치관을 추구하는 가족들의 캠프)를 다니셨다는 것이다. 지금도 진석이와 진영이는 CFO에서 1주일을 보내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신들을 무장해 각자의 학교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지금 진석이는 그 누구보다 학계에서 존경받는 실력자다. 조지타운 대학위대 안과의 조교수이자 워싱턴안과의사협회의 공동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람을 키워 진석이와 결혼한 에이미는 신부인과 의사인데, 진석이와 에이미 부부는 워싱턴 지역인 워싱턴톤니언(Washingtonian)이 선정한 최고의 의사로 뽑혔다. 워싱턴톤니언은 매년 수천 명의 의사들에게 37개 분야에 걸쳐 "당신의 가족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아무래도 의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다가 가장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뽑히기 마련인데 거기엔 진석이 부부가 나란히 뽑힌 것이다. 진석이는 또 Consumer Council(병문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고의 의사로 뽑혔다. 실력만이 아니라 환자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진석이의 태도와 마음가짐도 인정받은 셈이라 더욱 의미있다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이슬람 뉴스



시리아 남부 데아라에서 학생들 데모

무자비로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알라위의 종교세력에 의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두 명이 희생을 당한 가정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걸려있는 경제제재 조치와 국제단체들의 외교압력 등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만, 풀리지는 않을 것이기에 아사드가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시리아를 장악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76%가 넘는 수니와의 종교적 갈등이 아사드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전복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아무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나중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움을 전하며, 암만에서"

1. 내전으로 치달는 시리아 사태

지난 7일 UN소총회는 시리아 문제를 논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다시 양자의 화해를 촉구하고 외국군의 무력개입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그런데 시리아 대사는 역시 시리아 문제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어제도 하마 지역에서 72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반군소행으로 몰아붙였다.

시리아 대사는 유엔이 이중적이라고 도리어 항의조로 아랍어로 연설했다. 즉 경제제재를 취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모순된다고. 그런데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아랍국가와 유럽 외무부 장관회담에서 강한 어조로 아사드는 정권을 이양하고 외국으로 가라고 연설했다. 반군들의 주장에 의하면 시리아 사태가 일어난 후 지금까지 희생자는 12,495명이라고 발표했다. 여기 시리아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요르단으로 이동한 한 선교사의 편지를 공개한다.

"전 총장님,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소식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요르단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니, 시리아 내부 상황을 더 긴밀하게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니와 알라위의 갈등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제단체들이 바라는 방향을 넘어서 말라가다 정립되고 수니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레바논도 요르단도 아사드가 물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외국군의 군사개입도 자카리아가 언급한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수니 무슬림 10명을 죽이면 낙원을 보장한다는 종교 쇠뇌를 통해 많은 알라위들이 수니를

2. 이웃나라로 불통이 튀는 시리아 사태

시리아 사태는 바로 이웃한 나라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으로도 불통이 튀고 있다. 이유는 시리아 내전이 결국 시아파(아사드 대통령의 알라위)와 수니파의 종파 전쟁으로 발전하자 세 나라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더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며칠 전 일본 아사히신문은 해외여행자 안내에서 이라크에 종파갈등의 테러가 계속돼 여행을 자제하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바그다드에서 폭탄테러로 무려 60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3. 양극을 선택해야 하는 이집트 국민들

지난주 이미 이집트 대통령 선거 이후 후유증을 소개했지만 외신들은 두 대통령 후보로 압축된 결선을 앞두고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은 양극단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이 지지하는 무함마드 모르시는 당선되면 이슬람 샤리아법을 시행할 것이며 더 극단적인 개혁을 할 것으로 불안해한다.

반면 구정권에서 공군참모총장에 마지막 총리였던 아흐메드 샤피크도 만족하지 못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형제단들은 샤피크를 엄청난 공격해 이집트가 또 시끄럽다.

이러한 고민은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아랍의 봄을 경험한 리비아는 계속 보복행위로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튀니지에도 사회혼란으로 선거가 연기될 판이다.

4. 미얀마에서 불교도와 무슬림 충돌

얼마 전 미얀마에서 불교여성들이 무슬림 청년들에게 강간당하고 살해당하자 불교신자들에게 10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민주화로 나가는 미얀마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물론 발끈 들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하자 정부는 16일 조사위원회 설치 및 이달 말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프롬펜포스트, 6월 8일).

미얀마는 소송불교 국가지만 일찍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상인들이 이슬람을 전파했고 일부 짐작들이 베트남에서 패망한 이후 미얀마로 이동했다. 미얀마에서 무슬림은 소수면서도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그러나 2002년도에도 불교와 이슬람 간에 충돌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불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가장 심한 곳은 물론 태국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도 날로 확대되는 무슬림 세력에, 불교는 정중동이지만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물론 불교는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에도 작년에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전호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556-7777, Fax: (02)556-8239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1530-29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4724, Fax: (031)397-4724 경기도 군포시 신원동 41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imran.org Tel: (02)692-0929, Fax: (02)692-4348-677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0131-211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http://www.kimpo.org Tel: (02)212-0821, Fax: (02)212-0821 경기도 김포시 백곡동 20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석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42)229-4418, Fax: (042)229-4418 650-170 광교동 441번지, 서울 광진구 광교동 650-170번지	동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2)538-4491-5, Fax: (02)538-4491-6 2-19-8 신촌 4동 4491번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4491번지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석기도회: 오전 11:30,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9,419-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흥동 7070-1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후 4:00 수석기도회: 오후 8:00(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8:00(예배) Tel: 39-09-437-3595, 39-09-159-1798 39-09-642-3679(주말) VIA DEL GIULIN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광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예배: 새벽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2-3 (134-0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장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692-3 (134-030)	사여교회 담임목사: 손강희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수석기도회: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후 5:00(월-토) Tel: (02)212-0821-0821, Fax: (02)212-0821-082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회천동 371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후 5:00 주일 4부예배: 오전 6:3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 (134-050)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정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hil.org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7:30 (토요일) 원흥교회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석기도회: 오후 7:3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장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석기도회: 새벽 7:0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경기도 수원시 수지구 대곡동 42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수석기도회: 오후 8:3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수석기도회: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7:3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양곡교회 담임목사: 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석기도회: 오전 10: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041-370)부산 남구 신항동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석기도회: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Tel: (02)556-440-0106, Fax: (02)556-440-0106 인천광역시 서구 선유동 294-10(833-038)	정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석기도회: 오후 7:3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정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추서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석기도회: 새벽 5:3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307-232 동북동 307번지 서울동 250-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Tel: (02)538-2965-6, Fax: (02)538-2965-7 서울시 강동구 구파발동 820-18 (134-050)

전/강/칼/럼 (12)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구요...?

자기 일에 책임감이 없이 충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간혹 봅니다. 어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별로 주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위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평강이 없이 우울 및 불안 증세로 고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김'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을 의미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 건강으로 말하는 자기 위로일까요? 아니면, 남에게 태연한 척 하며 신앙심을 보이기 위함일까요? 다음은 한 목회 상담자가 상담을 받으려 온 한 신앙인에게 해 준 이야기입니다.

한 타운 전체가 홍수로 인해 인근의 강이 범람하여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영성 훈련으로 평상시에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던 한 친구, 그는 겨우 어느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타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구명보트(Boat)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 친구에게 타라고 권유합니다만 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보트는 떠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두 번째 보트가 와서 빨리 타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또 거절하며 보트를 떠나가게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들어주시지 않자 마음속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물이 가슴까지 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하나가 나타납니다. 구명 사다리를 아래로 던지며 빨리 올라오라고 하늘에

서 소리가 내려 옵니다. 그 친구는 태연한 척 하며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시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헬리콥터도 떠납니다. 결국 그 친구는 물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에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며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컴퓨터로 하신 일을 확인하십니다. 곧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곤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보트를 보냈는데 너는 거절했고, 심지어 헬리콥터도 보내었는데 너는 거절하더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최선을 다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위의 친구는 믿음과 영성을 기적과 연결하였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지 않고 특별한 일에 신앙의 의미를 붙이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받은 교훈은 저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으로 열심히 살아야 함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common Grace)에 감사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것은 믿음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도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신앙 자세는 가정, 교회, 사회생활 등의 곳곳에서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며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변인들과 나누게 하는 것 같아요. 형통하지 못한 때는 기도와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변인들과 고통을 솔직하게 나누는 감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불안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변의 도움(위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는 태도도 보이구요. ▲이메일: leesmindcare@gmail.com

(5면에서 계속) 그러나 처음부터 1세들의 도움 없이 2세들끼리 독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덴마크의 부흥운동과 감동적인 성공사례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덴마크는 북해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북풍 때문에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림을 만들 목적으로 전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았습다. 그래서 달가스와 그룬트비가 연구한 끝에 전나무만 심지 않고 사이사이에 전나무와 포플러 나무를 섞어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포플러는 위로만 자라는 성향이 있어 전나무 사이에서 먼저 위로 자라났습니다. 그러자 전나무들이 햇빛을 보아야 살아남기 때문에 포플러와 경쟁하여 햇빛을 보기 위해 위로 위로 자라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전나무가 아주 높은 키로 자라났습니다. 그때 포플러를 잘라냈습니다. 그 후로 전나무

무는 스스로 계속 자라 거대한 숲을 이루어 천연 방풍림으로 북해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황무지였던 덴마크를 북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낙농국으로 만든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2세들과 우리 1세들이 왜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운 교회와 선교를 이어갈 것인데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고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1세대 목회자는 마음을 비우고 물러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다음 세대는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붙잡고 부모세대의 희생과 열정을 배워가며 계승해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하는 브리지(Bridge)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 0210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땃땃한 성도 (마26:57-68)

63절 대제사장 가버바는 예수님께 "내가 너로 살아가게 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기 위한 유도심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난처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온 다해도 정체성과 믿음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마5:14)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품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밝히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역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들. 주님은 "나는 주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10:11-31).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항상 밝히며 떳떳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성령 따라 사는 자세 (마26:69-75)

75절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자신을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신없이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순간 주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지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가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이자 그를 사랑

하시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도들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고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는 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 확신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 회개와 후회 (마27:1-10)

3, 4절, 주님을 판 가롯 유다는 주님께서 사형당하심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주님을 판값으로 받은 은 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렐레데이스'는 후회하디의 의미입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메타노에오'는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가롯 유다의 회개 아닌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후회에 그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의지해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므로 다 영생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7:10)

목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27:11-23)

11절은 주님께서 마침내 총독 앞에 서서 심문받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오매'라고 기록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감히 절대적인 심판권을 지니신 주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처지와 주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함부로 정죄하고 사형에 처함으로써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일 뿐 주님

금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마27:24-26)

24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자신의 노력이 군중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처형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일은 전적으로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우매한 군중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따라 유대인들과 야

합해 사형을 언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죄를 숨기거나 핑계하지 못합니다(롬14:12).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일일이 살펴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면서 죄를 멀리 해야겠습니다.

토 주님이 받으신 고난 (마27:27-31)

29, 30절은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시편말씀대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았나이다" 수백 명이 둘러싸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머리를 갈대로 쳤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수치를 조롱을 당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보다 몇 만 배 더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

시는 동안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실 때는 하늘 영광과 천군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영광중에 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처럼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면 나중에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선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회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674-372-5100 (Ext.: 8335), 674-372-28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인/터/뷰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미기총 회장/미주평안교회 담임)

패역한 도시, 복음의 일군 양성에 최선

지난 2일 송정명 목사가 월드미션대학 총장으로 취임했다. 송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장 취임 소감과 함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및 담임으로 있는 미주평안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기총이 14년간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활동이 좀 미약했던 것이 많았지요. 지난 회기 동안에는 어떤 면에서 주춤했을는지 놓기 위한 홍보에 주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교과 교회인 만큼 앞으로 후임자를 선임할 때도 오픈된 목회자를 모시고 커뮤니티와 함께 가는 교회를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표어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월드미션대학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을 말씀해주시죠.

이민목회현장에서 36년을 있다 보니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지요. 목회나 학교, 모두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이 일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맡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신실한 무장된 일군을 키우는 일을 마지막 사역으로 감당하고자 순종했습니다.

사실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임성진 목사가 총장으로 선임됐는데 임동선 목사와 인적관계인 점을 들며 극구 사양했지요. 세습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임동선 목사님께도 누 가 된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새로운 후임자를 찾게 됐고 저를 뽑아 주셨습니다. 임동선



ATS 정회원 준비중, 유학생 유입·인터넷과정 확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 목표로 36년째 이민목회

목사님의 뜻을 이어 받아 영적으로 패역한 나라와 도시를 위해 복음의 일군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를 위한 새로운 계획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처 학교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고 목회를 당장 그만두는 것도 아니라서 아직은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교회 일을 해나가야 하기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면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월드미션대학교는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준회원으로 있으면서 정회원이 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만 갖추면 미국 대학으로 진출 것은 다 갖추게 되지요. 앞으로 한국에서 학생들을 유입하는 일과 인터넷 원격과정을 확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면에 손색이 없는 학교로서 리더양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현지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기초처럼 각 교단들을 영입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간혹 미기총 활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인식을 벗어나 각 지역교회협의회를 끌어들이어 교계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결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기총은 미주 지역이 넓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는데 각 지역마다 공동회장이 있고 이 공동회장 가운데 수석공동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7월 총회를 통해 동부에 계시는 황의준 목사(트렌톤장로교회 담임)님이 다음회기 회장이 되십니다.

-섬기고 계신 미주평안교회 소개와 목사의 목회철학을 들려주세요.

저희 미주평안교회는 초교파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로서 커뮤니티와 함께 가는 교회이지요.

1975년 1월 첫 주에 황의영 목사님(SBM총재)께서 15명의 성도들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저는 1989년 3대 목사로 취임을 해서 현재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교회가 초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7: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민목회를 36년째 하면서 느낀 것은 이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교인들로 양육하고 싶은 바람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말씀을 행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꿈꾸며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교회를 방문한 화요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는 평일임에도 현지인들과 한인들의 모임이 교회 곳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교회임을 증명하는 듯 했다. 미주평안교회와 월드미션대학교에 관한 정보는 <http://www.mpcla.org> <http://www.wmu.edu> 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LA지역 아시안 성인 발달장애인 및 자폐인 돕기

ARS 한인 38%...기술직업훈련, 치료상담, 고용지원 등



ARS스텝진들

1972년에 설립된 아시안 발달장애 서비스(Asian Rehabilitation Service, Inc., ARS)는 사우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LA지역 아시안 성인 발달장애인 및 자폐인을 위한 직업훈련, 독립생활 훈련 및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다. 한국인이 주류로 38%를 차지하고 중국인이 약 33%이며 그 외에 베트남, 필리핀인들이 있고, 소수로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히스패닉, 코카시안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ARS는 LA지역 리지널 센터(Regional Center)와 캘리포니아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 DOR)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포장 및 조립 등 하청 받은 일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일터에서 알아야 할 규율과 사회생활의 기본을 훈련하는 보호 작업장 프로그램(Work Activity Program), 개인에 맞는 사회훈련과 직업훈련을 하는 사회적응 훈련 및 행동수정 프로그램(Personal, Vocational and Social Adjustment Program), 직업훈련에 필요한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상담과 계획 그리고 행동수정훈련 및 치료를 담당하는 상담 프로그램(Counseling Program), 커뮤니티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Supportive Employment Program)이 있다.

ARS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 종교적인 색채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이곳을 사용하는 원생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의 대부분이 교인들이다 교회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RS의 김민지 케이스 매니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인 ARS는 그동안 교계와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그 이유는 100% 교회와 선교단체들에서 지원

을 받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단체였고 정부 역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운영하기를 원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이민사회는 타인종 커뮤니티와는 달리 교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ARS의 대부분의 원생들은 몇 안 되는 LA지역의 특수사역이 있는 교회와 장애인 선교단체에 연계하고 있어 가족과 같이 지내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교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RS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교회 특수사역에 오랫동안 봉사해왔으며 교회사역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개인의 필요와 변화를 듣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기독교 기관이지만 단순히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ARS에 여러 스텝들 중 한국인 스텝은 세 명이 있다. 이 세 명의 스텝들은 모두 교회 특수사역에 관해 봉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중 디렉터(Director of client service) 스텝 반윤은 나성영락교회의 특수사역부 소망부에서 20년간 봉사해 원생들의 장애를 잘 알고 그들 삶의 변화를 위해 헌신해왔다. 잡 코치(Job Coach) 재문희 전도사는 사랑의빛선교교회 특수사역부에서 전도사로 섬기며 원생들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

아시안 발달장애서비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아시안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독립생활과 직업훈련을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언어로 서비스를 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213)743-9242, minjiasianrehab.org로 연락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집회기도, 찬양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일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기성,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 매일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